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陶山十二曲의 文學性과 指導方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趙 志 勳

2019年 8月

# 陶山十二曲의 文學性과 指導方案

指導教授 孫 五 圭

趙 志 勳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6月

趙志勳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현 승 환	
委 員	손 오 귀	
委 員	노 대 원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9年 6月

# The Literary Value of Dosansibigok and its Teaching and Learning Plans

Jo, Ji-hun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9.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hn, O-Gyu,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 陶山十二曲의 文學성과 指導方案

趙志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五圭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조선전기 산수 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시조의 정형성을 지키면서도 주제의식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육곡계 형식을 사용하여 육곡계 시가의 전통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와 감흥 그리고 학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 경물과 조화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후대 시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산십이곡의 교육적 가치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한 후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학’ 과목 영역 중 고전 작품이 주로 다루어지는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부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에 초점을 맞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도산십이곡>에서 자연 경물을 표현할 때 집중과 배제의 방법을 통해 전경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서경미와 자연 경물과 감정의 조화를 통해 형성되는 ‘賞心’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퇴계의 유학적 산수관이 작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둘째, <도산십이곡>의 교훈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언지 여섯 수와 언학 여섯 수의 주제의식을 함의하고 있는 각 부분의 마지막 수를 중심으로 퇴계가 지은 한시와 연계하여 퇴계가 후학 및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작품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연구하였으며 ‘도산십이곡 발’에 언급된 온후돈후의 경지가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별의 ‘육가’와 비교하며 고찰하였다.

셋째, <도산십이곡>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퇴계가 속한 영남학과 문인 중 퇴계 이전의 문인인 이현보와 주세붕의 시가 작품과 비교하여 퇴계가 이들 시가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개선하여 발전된 산수 문학을 창작하였음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도산십이곡> 이후 창작된 여러 문인들의 작품을 분석하며 퇴계의 문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였으며 <도산십이곡>의 육곡계 형식이 후대에 전승되어 하나의 전통을 확립하였음을 후대 육곡계 시가 작품을 분석하며 고찰하였다.

넷째, 위에서 제시한 ‘賞心’을 학습자 중심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고전시가 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해당하는 여섯 개의 성취기준 각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발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음을 반응중심모형을 반영한 과정안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도산십이곡>이 현대에서도 충분히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국문초록>

I. 序論 .....	1
II. 陶山十二曲의 文學性和 배경 .....	6
1. 山水景物의 描寫와 서경미 .....	6
2. 賞心 表現과 서정성 .....	11
3. 유학적 山水觀과 현실성 .....	19
III. 陶山十二曲의 敎訓性 .....	23
1. 言志와 산수 은거의 이상 .....	23
2. 言學과 학문 완성 의지 .....	28
3. 溫柔敦厚와 인격 수양 .....	32
IV. 陶山十二曲의 文學史的  의미 .....	39
1. 한국 산수문학의 完成과 시조 창작 .....	39
2. 사대부 시가의 정형성 확보 .....	47
3. 육곡계 시조의 전통 형성 .....	58
V. 반응중심모형을 活用한 陶山十二曲의 指導方案 .....	66
1. 학습자 중심 개념으로서의 賞心 .....	66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전시가 교육 .....	68
3. 반응중심모형을 活用한 陶山十二曲 敎授·學習 指導의 實際 .....	74
VI. 結論 .....	98
<참고문헌> .....	101
<Abstract> .....	104

## I. 序 論

현존하는 最古의 시가인 공무도하가와 황조가에서부터 자연물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대시가부터 현재까지 자연은 우리의 시가 양식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때 정계의 세력다툼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자연에 은거해야 할 경우 뿐만 아니라 방외인들이 혼탁한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려는 목적으로 자연에 머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은 항상 긍정의 공간이었으며 인간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산수문학을 규정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자연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산수경물을 감상하고 이를 문학 작품으로 탄생시킬 때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표현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연을 주관적으로 그려내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진정한 산수문학의 경지라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자연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自然合一이라고 하며 이때의 주체는 自我이다. 그러므로 ‘自然合一은 自我가 自然에 나아가 하나에 습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수동적인 대상인 것이 아니다. 자연은 대상 그 자체로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사시철 자연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며 이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연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자연적 원리에 따라 운행되는 삶을 보며 자아는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흥취와 감흥을 자연과 합치시키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자아의 상대적 개념이자 현상적으로는 獨立的이다. 자아 또는 자연 어느 한쪽이 主나 從의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相對的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sup>1)</sup>

즉,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산수 경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감각적 아름다움에 치중된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산수문학은 자신의 정서 또는 정신적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자연을 감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수반되고 표현되어야만 진정한 산수문학이라 할 수 있다.

1) 손오규(2006),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p.49.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자연에서 촉발된 자신의 감정과 깨달음을 言志, 言學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자연 경물과 혼연일체가 되도록 표현하였으므로 진정한 산수문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손오규(1990)는 산수미란 내용미와 형식미로 나누어지며 <도산십이곡>에서는 이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자연 경물의 구조가 미의 형식적 법칙에 부합되면 자연 그 자체의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작가인 퇴계의 뜻과 학문에 대한 견해가 자연에 반영되어 주관적으로 변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리하면 자연 경물의 형식미를 보며 감상자는 자연스럽게 내용미를 느끼게 되고 이 과정에서 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sup>2)</sup>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퇴계의 <도산십이곡>이 자연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뜻과 학문의 길을 한 작품에 표현한 것 즉, 서경과 서정을 조화시킨 독자적 문학성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도산십이곡>에 표현된 자연 경물에 대한 표현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산수경물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작품에 드러난 자연의 서경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물에 의해 촉발된 감정이 시에 어떻게 드러나 있으며 자연의 실경과 조화를 이루어 일정한 구조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賞心’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서경미와 서정미의 조화를 통해 이황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유학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도산십이곡>의 문학성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정화(2003)는 퇴계 시에 대한 연구가 시의 문학성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퇴계가 도학자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음을 지적하고 시인으로서의 퇴계의 작품에 대한 문학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학문이 난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창작한 작품에서 시인으로서의 정감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sup>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도학자로서의 이황의 생애와는 거리를 두고 도산십이곡 작품 자체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문학성과

2) 손오규(1990), 「退溪의 山水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P.133.

3) 이정화(2003), 「退溪詩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고전문학전공, p.1-2.

주제를 고찰하여 후대 독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연구할 것이다.

<도산십이곡>의 문학성은 조선시대의 기준에서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도산십이곡>의 교훈성을 고찰하기 위해 前六曲과 後六曲의 주제를 집약하고 있는 言志 6수와 言學 6수 각각의 내용 및 표현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이황의 한시와 주제의식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도산십이곡>이 현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적 내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현자(2002)는 육가계 시가의 전통에 대해 논하였으며 특히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퇴계가 은거 강학을 할 시기에 창작된 것이며 이러한 은거는 학문에 전념하고 싶다는 바람과 더불어 명철보신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보다는 어지러운 정계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거 생활 중에도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벗지 못하고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sup>4)</sup>

하지만 이황은 <도산십이곡>을 창작하기 이전부터 벼슬길에서 자진하여 물러나려는 의지를 자주 보였으며 <도산십이곡>에서도 속세에 대한 집착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기에 이러한 도산십이곡의 해석은 작품 본연의 의미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도산십이곡>은 후대의 시조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산수문학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도산십이곡>의 육곡계 형식은 후대의 많은 영남학과<sup>5)</sup> 계열 학자들뿐만 아니라 여타 유학자들이 세속에 대한 자신의 걱정 및 유학적 가치관, 자연에서의 안분지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前六曲과 後六曲 두 부분으로 나누어 총 12수를 표현한 작품 및 여섯 수만을 제시하여 그 안에 주제의식을 담은 육곡계 시가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퇴계의 <도산십이곡>에 드러난 자연에서 촉발된 뜻과 학문에 대한 생각은 현대의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과정의 연속된 변화

4) 이현자(2002), 「조선조 연시조의 유형별 변이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p. 117-122

5) 시문보다 도학을 더욱 존중한 가단으로 심성을 닦고 도를 기르는 자세로 시조 작품을 창작하여 서 울 중심의 기존 경향과 경쟁하였으며 시조를 지어 풍류를 즐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강호에서 지내며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삼은 가단.(조동일(2009), 「한국문학 통사2」, 지식산업사, p.334.)

속에서도 꾸준히 교과서에 수록되어 왔다.

학생들은 문학 수업을 접하면서 수용과 창작 과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문학 작품 및 갈래적 특성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선대 작품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서경과 서정의 조화에서 비롯한 주제적 감상 및 표현능력을 습득하기에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고전시가 교육에 적합한 제재이다.

송지언(2012)은 문학작품을 학습자가 ‘직접’ 읽는 활동은 문학교육에서 강조될 수 있는 경험교육이지만 문학 작품의 내용 또한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제재라는 점에서 직접경험 이외의 측면이 문학교육에서 중요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간접경험’을 제시하였으며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 자체는 직접경험이지만 감상 과정에서 체험하는 작품의 세계와 작가의 감정 등은 간접경험의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상에서 체험하는 직접경험보다 문학 작품의 감상을 통해 체험하는 간접경험에서 더욱더 선명한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때로는 직접경험보다 간접경험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본 논문에서는 고전시가 작품에 내재해 있는 의미를 학습자가 찾는 과정에서 겪는 간접경험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과 동시에 현재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고전문학 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산십이곡>을 오늘날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해야 할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현재 고전시가 교육은 고전시가의 문학적 가치가 현대 문학보다 뒤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특수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제재로 사용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이 이루어진다 해도 정설로 인정되는 해석을 교사가 전달하는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고전시가 교육은 문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장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평생 독자가 되었을 때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도산십이곡의 교육적 제재로서의 가치를 산수의 형상화 및 賞心 표현, 유교적 가치관을 통해 형성되는 문학성, 도산십이곡의 교훈성, 문학사적 의

6) 송지언(2012),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p.54

의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찰하며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산수문학의 주요 개념인 ‘賞心’을 학습자 중심의 개념으로 재정의한 후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인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토대로 학생들이 작품을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토대로 고전시가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발문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陶山十二曲의 文學性和 背景

산수 문학 감상의 초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이 광활한 자연을 문학 작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옮기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자연 경물을 완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시조는 고전시가 중 짧은 형식에 속하며 가사와 다르게 많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수 없기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집약해서 다루어야 한다.

여기서는 퇴계가 산수 경물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중심으로 도산십이곡의 서경미에 대해 다룰 것이며 이와 동시에 산수 경물에 의해 촉발된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룰 것이다. 그리고 퇴계가 유학적 산수관을 서경미와 서경미를 조화시켜 도산십이곡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 1. 山水景物의 描寫와 서경미

김경철(2000)은 서경이란 항상 불변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외적 세계의 자연 경물이 작가 내적인 요소가 작용한 정의를 통해서 주관적 감수의 과정을 거쳐 작품 중에 표현되어 고상한 형태의 세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sup>7)</sup>

여기에서는 수많은 자연 경물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자연 경물을 선택, 집중하는 방법과 선택, 집중된 자연 경물의 공간적 배치를 통해 산수가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서경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적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제한된 짧은 형식 안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해서 써넣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형상화할 때도 실경산수화같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세히 표현하기보다는 선택

7) 김경철(2000), 「松江歌辭의 敘景性 研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19.

과 집중의 방법이 필요하다.

집중은 회화 분야의 이론으로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집중에 대해 고찰할 때면, 반드시 배경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야 설명할 수 있다.<sup>8)</sup> 시조 창작 과정에서 자연 전체 경물 중 집중할 대상을 골라 전경화하고 나머지 대상은 배경으로 삼는 과정을 통해 시조가 창작되는 것이다.

도산십이곡에 표현된 경물의 모습은 三遠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삼원법은 산수화의 공간구성법으로 遠近을 통하여 산수를 그려내는 방법이다. 郭熙는 산에는 삼원이 있는데, 산 아래에서 산마루를 조망하는 것을 高遠이라 하고, 산 앞쪽에서 산 뒤쪽을 들여다보는 것을 深遠, 자신과 가까운 산에서 자신에게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平遠이라고 했다.<sup>9)</sup>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 | 로다

빼 만흔 굴머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皎皎白駒는 멀리 므음 흐는고<sup>10)</sup>

言志 5수는 三遠法을 바탕으로 볼 때 초장부터 平遠을 통해 산수미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 앞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아래 물이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선의 이동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리며 시조를 써 내려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

초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시선이 중장에서는 高遠을 사용해 하늘에 있는 갈매기로 시선이 옮겨가며 다시 위로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장에서 정적인 풍경의 모습을 제시했다면 갈매기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言志 5수에서 묘사되는 산수의 범위는 臺, 流水, 굴머기에 한정되어 있다. 무한

8) 손오규(2012),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p.41.

9) 傅抱石, 『中國의 人物畫와 山水畫』, 李馨淑 역(대원사, 1988), p.89.(손오규(2012),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p.45-46.에서 재인용)

10)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3.

히 구성되어 있는 산수 경물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별한 것이다. 퇴계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연물들은 이외에도 훨씬 더 많았겠지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부합되는 대상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은 짧은 형식 안에서 효과적으로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미적관조의 주체는 '마음'이다. 이때의 마음은 정신을 의미한다. 우선 산수의 형식은 감각을 통해 그 특성과 특질이 파악된다. 바람과 물은 촉각을 통해 시원함을 느끼며, 단풍은 시각을 통해 그 붉고 고움을 알게 된다. 동시에 계절적 변화의 느낌은 일차적으로 감각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산수경물이 미적관조의 대상이 될 때, 이미 형식은 사유의 대상이 된다. 정신에 의하여 형식적 특징의 구성과 원인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등등을 사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상자는 자신의 기호와 적성에 어울리는 산수의 형식을 발견할 때, 미감을 느껴 산수의 형식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산수의 형식은 물질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사유의 대상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수경물은 감각에 의한 경험의 대상에서 출발하여, 사유의 초경험적 대상으로 단계적 상승이 이루어질 때, 형식미로서 형상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위 설명은 '一切唯心造'를 떠오르게 한다.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연 경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다른 것을 떠올릴 것이므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시조에서 구성된 자연 경물의 구조 체계는 일정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즉 위 관점에서 보면 言志 5수에 제시된 자연은 작가의 기호와 적성에 따라 각고의 선별과정을 통해 선택되어 표현된 것이고 동시에 정신적 사유의 대상으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장에서 갈매기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의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머릿속에서 자연

11) 손오규(2012),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p.48-49.

에 조용하는 화자의 곁에서 비행하는 갈매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대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을 경계하고 자연과 물아일체를 이루는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초장의 자연경관과 연결 지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독자와 창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 등장하는 교교백구는 어석적 풀이를 통해 흰 망아지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흰 망아지가 멀리 뛰어나갈 생각만 하고 있음을 설의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흰 망아지는 화자와 동일시의 대상이자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중장처럼 자연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택하지 못하고 벼슬길에서 공명만을 탐하는 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해석 중 도산십이곡에서 일관적으로 세속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에서 느끼는 온전한 즐거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은 자연경관의 공간적 배치에 따른 형식적 측면에서 타당한 설명이 가능하다. 갈매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존재로 자신의 의지한 바에 따라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망아지는 지상에 귀속된 존재로 하늘의 갈매기보다 이동에 제약이 있다.

즉 자연에 은거하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자신을 갈매기와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자연에 은거할 뜻이 있으면서도 이를 행하지 못하는 현자들을 현인들이 타는 것으로 자주 표현되어 의미적 인접성이 있는 흰 망아지로 제시한 것을 통해 작가의 의도에 따른 공간상의 대조적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수평적 공간에 존재하는 망아지와 수직적 공간에 존재하는 갈매기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하늘과 땅에 걸친 광활한 자연경관을 상상하게 하는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주제의식 전달에도 기여함으로써 이를 통해 서경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言志 5수와 유사한 주제로 세속에서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것에 대해 다룬 한시로는 다음 작품이 있다.

<和陶集飲酒二十首(화도집음주이십수)>

내 본시 산야(山野)에 알맞은 체질  
번잡은 싫어라 고요가 좋아  
번잡을 좋아해선 안되지마는  
고요만 좋아해도 편성(偏性) 아닌가  
그대는 큰 도 지닌 사람을 보소  
저자도 산림(山林)과 마찬가지로  
의(義)에만 맞는다면 가리질 얹아  
갈 수도 있고 또한 올 수도 있네  
인치(磷緇)되기 쉬울까 걱정이거니  
조용히 몸 닦는게 좋지 않은가<sup>12)</sup>

我本山野質(아본산야질)  
愛靜不愛喧(애정불애훤)  
愛喧固不可(애훤고불가)  
愛靜亦一偏(애정역일편)  
君看大道人(군간대도인)  
朝市等雲山(조시등운산)  
義安卽蹈之(의안즉도지)  
可往亦可還(가왕역가환)  
但恐易磷緇(단공역린치)  
寧敦靜修言(영돈정수언)

자신은 본시 자연에 은거하는 삶이 더 어울린다고 하며 작품 창작의 의도를 전면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시작하고 있다. 고요와 번잡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삶에 대해

12) 이항, <和陶集飲酒二十首 中 其五>(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145-146.)

경계하며 이러한 균형을 이룬 사람을 ‘큰 도 지닌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속세로 나가거나 자연 은거의 삶을 택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자연의 은거하는 삶이 더 낫다는 것을 작품 말미에 표현하여 작품 서두에서 내비친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言志 5수와 비교했을 때 위 한시에서는 세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자연 경물에 대한 배치나 묘사와 같은 별다른 표현 없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것에 비해 言志 5수에서는 자연 경물의 선택 및 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제 의식을 표현함으로써 함축적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한시에서는 자신이 세속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도산십이곡에서는 이미 세속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며 다른 이들도 자신처럼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 경물의 구조적 배치에 따른 함축적 표현은 ‘도산십이곡 발’에서 제시된 것처럼 독자들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용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체득하기를 바라는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퇴계는 자연 경물의 본래적 형식미를 작품에 옮겨와 자신의 사유가 자연의 일반적 흐름과 같이 일반적이고 궁극적인 진리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사유의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집중과 배제를 통해 창출해낸 서경미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賞心 表現과 서정성

산수 문학은 자연 경물에 대한 묘사도 중요하지만 자연 경물을 보며 촉발된 감상자의 감흥 또한 산수 문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감흥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지만 각자의 감정이 다른 이에게 공감될 수 있다면 모두 타당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산십이곡이 여타 다른 문학 작품보다 더 인정받고 산수 문학의 정형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히 자연 경물을 감상하며 느끼는 즐거움에 치중하여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자연 경물과 감흥의 조화를 통해 이치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도산십이곡에 표현된 자연 완상에 대한 즐거움을 ‘賞心’이란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산수 문학을 창시한 謝靈運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산수를 온전히 즐겁게 감상하는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산수 문학이라는 장르가 탄생할 수 있는 근원이다. 이 賞心이 촉발되었을 때 즉, 비로소 자연과 인간이 합치되는 경지에 이를 때 산수미가 발현되는 것이다.<sup>13)</sup>

여기서 賞心은 자연 경물과 별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 경물과 마음을 통해 산수 경물을 자신의 정신세계와 연결 짓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賞心이 단순히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관점 및 가치관의 의미 또한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도산십이곡 작품을 직접 살펴보며 자연과 퇴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합치되어 賞心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서정성을 획득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賞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연물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 주관적으로 변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마음대로 자연의 본질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보며 이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고 이를 통해 자연물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자연과 이를 통해 촉발되는 감정이 하나가 되어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靑山은 옛제호여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제호여 晝夜에 굿지 아니늘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萬古常靑 흐리라<sup>14)</sup>

13) 손오규(2000),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p.92.

14)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6.

言學 5수의 초장에서는 산의 푸르름이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제 모습을 유지함을 제시하고 중장에서는 흐르는 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는 것을 제시하여 불변의 속성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대구적 형식으로 제시하여 운율 획득 및 의미 강조의 효과 또한 얻고 있다. 퇴계는 푸르른 산과 흐르는 물을 보며 인간의 도덕성과 학문의 자세를 연상하였고 이에 촉발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푸르른 산과 물의 흐름은 인위적인 요소가 일체 배제되어 있는 순수 자연 경물로 퇴계의 유교적 사상을 반영한 자연물로서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퇴계가 <도산십이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이는 ‘萬古’와 ‘晝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성 속에서 유교적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수양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광활한 자연 속에서 퇴계는 사계절을 거치며 추위와 바람 속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청산과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되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온갖 장애물을 뚫고 흐르는 물의 모습을 보며 감흥을 느끼고 이를 중장에서 인간의 도리 및 학문 수양의 자세와 연결 지은 것이다.

이를 자연에 은거하며 수양하는 이황 본인과 후학의 모습과 일치시킴으로써 끊임없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하는 자연과 같이 일관성을 잃지 말자는 것을 ‘萬古常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하는 것보다 ‘靑山’과 ‘流水’에 빗대어 인간의 삶의 자세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문학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푸르름이라는 속성과 연결 지어 생각한 것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주관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의 전체적 의미는 그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독립적 의미를 가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소의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생긴다. 이러한 의미는 각 요소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중략> 세 문장으로 구성된 시의 의미는 각기 독립된 세 문장의 의미와는 다른, 그 독립된 문장의 세 가지 의미로는 환원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sup>15)</sup>

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된 자연 경물들은 퇴계의 의도에 의해 하나의 작품에 사용되면서부터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의미들이 모여 이루는 작품의 주제는 작가의 사상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

퇴계는 도산십이곡 창작 이전부터 학문뿐만 아니라 유교적 가치의 준수에 대한 일관적인 모습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학문과 인성에 대한 끊임없는 수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자연 경물을 감상할 때 느끼는 즐거움에 인간사의 도리에 대한 깨달음이 녹아들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한결같은 학문의 자세 및 인성 수양의 자세를 갖추는 인간의 가치를 사시사철 푸른 산의 모습과 끊임없이 흐르는 물의 불변성으로 전환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의 전이를 통해 퇴계는 교화적 내용의 직접적 노출로 인한 서정성의 파괴를 방지하고 독자와 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를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다. 言學 5수처럼 자연물에 빗대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 한 시로 다음 작품이 있다.

<枯竹(고죽)>

가지와 잎은 반쯤 말라 붙었으나,  
기세와 절개는 전혀 죽지 않았네.  
기름진 기장밥 먹는 자제들에게 말하건대,  
초췌한 선비 가벼이 보지 말게나.<sup>16)</sup>

枝葉半成枯(지엽반성고)

氣節全不死(기절전불사)

寄語膏粱兒(기어고량아)

無輕樵悴士(무경초취사)

15) 박이문(2017), 『인식과 실존』, 미다스북스, p.187.

16) 이황, <枯竹>(이장우 외 1명(2007), 『퇴계시 풀이 3』, 영남대학교출판부, p.454.)

위 시는 가난하고 힘든 처지지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선비들을 마른 대나무에 빗대어 입신양명을 위해 사회와 타협하고 남과 경쟁하는 세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 작품이다. 속세에서 현실적 가치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른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의적 표현을 통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위 言學 5수와 동일하다. 言學 5수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성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경지 역시 직설적 표현으로 제시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항상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지닌 ‘萬古常靑’으로 제시하여 독자에 대한 작품의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賞心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연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명과 건축물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산십이곡에 드러난 賞心은 구체성과 사실성을 얻게 된다.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灑호디

萬卷 生涯로 樂事 | 無窮호애라

이 중에 往來 風流를 닐러 무슴 홀고17)

전육곡과 달리 위 言學 1수에서 초장에 등장하는 ‘天雲臺’와 ‘玩樂齋’는 실제하는 공간으로 작가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言學 1수에 도산서당과 관련된 지명을 제시한 것은 후육곡이 전육곡과 다르게 자연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생각을 다룰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작품 내에서 ‘天雲臺’와 ‘玩樂齋’는 도산에 위치하는 경치 좋은 장소와 서재라는

17)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4.

단순한 의미를 넘어 남은 생애를 학문에 모두 바치고자 하는 퇴계의 의지가 반영된 공간이다. 이는 퇴계의 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玩樂齋(완락재)>

공경을 주로 함은 의(義)를 모은 공력이라  
잇도 말고 돕도 말고 차츰차츰 융통(融通)해야  
염계(濂溪)의 태극(太極) 묘리 깨닫게 되는 날에  
천 년이라 이 즐거움을 비로소 믿으리다<sup>18)</sup>

主敬還須集義功(주경환수집의공)  
非忘非助漸融通(비망비조점융통)  
恰臻太極濂溪妙(흡진태극렴계묘)  
始信千年此樂同(시신천년차락동)

퇴계는 도산서당에 머물 때면 완락재에서 머물렀을 정도로 퇴계에게 밀접한 공간이었으며 그런 만큼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위 한시에서도 ‘염계의 태극의 묘리’를 깨닫기 위해 나날이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통해 퇴계의 학문과 분리할 수 없는 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에는 造境도 있고 寫境도 있으니, 이것이 理想과 寫實 두 派가 구별되는 근거이다. 그러나 이 둘은 분별이 자못 어려우니 大時人의 所造之境은 반드시 자연에 부합하고 所寫之境은 또한 반드시 理想에 가깝기 때문이다.<sup>19)</sup>

18) 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24.

19) 王振鐸(1995), 『人間詞話』與『人間詞』, 河南人民出版社, p. 14.(손오규(2012),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p.56.에서 재인용)

言學 1수의 ‘天雲臺’와 ‘玩樂齋’는 실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寫境에 해당한다. 이는 현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념을 작품에 투영하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중장으로 넘어가면 言學에 해당하는 첫수인 만큼 끝없는 학문 탐구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 경지에 대한 표현은 위의 寫境이 이상에 가깝다는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寫境의 순차적 제시로 天雲臺를 돌아 들어가면 맑고 깨끗한 玩樂齋가 나온다는 구성을 통해 짧은 시구에 넓은 공간을 담아내고 있다. 도산서당 주변에서 경관이 좋은 天雲臺를 제시하여 독자나 청자로 하여금 이곳의 진산진수를 떠올리게 하고 이를 관통하여 들어간 곳에 중장에서 학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장소인 玩樂齋를 소개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만권이나 되는 많은 서적을 탐독하는 일이 끝없이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제시하여 학문 탐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경관의 제시와 자신의 뜻을 병렬적으로 배치한 것은 평생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서경미와 동시에 서정미를 획득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자연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고 학문을 탐구하며 이따금씩 밖에 나가 자연을 벗 삼아 산책하는 즐거움에 대해 논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자신의 오랜 이상이었던 학문에 전념하며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바탕으로 산수를 받아들여 형성한 賞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言學 1수와 같이 독서에 대해 언급한 한시로는 다음 한시가 있다.

<讀書如遊山(독서여유산)>

글 읽는 것 사람들 산 놀이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 산 놀이가 글 읽기와 비슷하다네.

공과 힘 다할 때는 원래 아래서부터 시작하고,  
 얇고 깊음 얻는 곳 언제나 그곳에서 말미암네.  
 앉아서 구름 이는 것 보자니 묘함 잊겠고  
 걸어서 물의 근원에 이르니 비로소 시작하는 곳 깨닫네.  
 산꼭대기 높이 찾음 그대들 힘쓰게나,  
 늙고 쇠하여 중도에 그만둬 내 심히 부끄럽네.<sup>20)</sup>

讀書人說遊山似(독서인설유산사)  
 今見遊山似讀書(금견유산사독서)  
 工力盡時元自下(공력진시원자하)  
 淺深得處總由渠(천심득처총유거)  
 坐看雲起因知妙(좌간운기인지묘)  
 行到源頭始覺初(행도원두시각초)  
 絕頂高尋勉公等(절정고심면공등)  
 老衰中輟愧深余(노쇠중철괴심여)

위 한시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독서와 자연 완상의 이분법적 구조를 허물고 산놀이가 독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학문은 단숨에 높은 경지로 오를 수 없으며 그러므로 낮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하며 맨 꼭대기까지 이르렀을 때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은 포기하여 부끄럽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반어적 표현으로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위 한시가 학문에 정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반해 言學 1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학문에 정진하는 즐거움에 대해 함축적으로 제시했다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萬卷’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평생 꾸준히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는 학문 수양의 자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0) 이항, <讀書如遊山>(이장우 외 1명(2007), 『퇴계시 풀이 3』, 영남대학교출판부, p.512-513.)

위와 같이 <도산십이곡>에서 서정미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형성되는 서경미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다. 서경과 서정은 분리할 수 없으며 서경과 서정이 마음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賞心이 형성되고 이는 작품에 내면화되어 있다. 독자와 창작자는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 경물과 이에 촉발된 화자의 감정을 감상하고 공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제의식을 체화할 수 있다.

### 3. 유학적 山水觀과 현실성

위에서 <도산십이곡>의 서경미와 서정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연은 광활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묘사하는 것은 본래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특정한 자연현상과 경관에 대한 집중과 더불어 이와 관련 없는 주변 배경에 대한 배제를 통해 자연을 형상화하는 과정을 고찰하며 도산십이곡의 서경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불어 자연경관은 인간의 마음과 합치될 때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며 산수를 감상하는 즐거움에 의해 촉발되는 감정을 ‘賞心’이라 하였으며 자연 경물과 인간 감흥의 조화를 통해 ‘賞心’이 형상화되는 과정을 고찰하며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도산십이곡의 서정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자연경관의 형상화 및 자연경관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서서 퇴계의 유학적 가치관이 작품 내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淳風이 죽다 하니 眞實로 거짓말이  
人性이 어지다 하니 眞實 올흔 말이  
天下에 許多 英才를 소겨 말씀홀가<sup>21)</sup>

21)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2.

위 言志 3수에서는 성선설에 대한 퇴계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言志 3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순박한 풍습이 사라졌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타고난 성품이 어질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성품은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선설의 입장을 대조와 대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言志 3수에서는 자연 경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용에 드러난 깨달음의 내용은 자연의 이치를 보고 느끼며 얻은 결과임을 도산십이곡의 다른 부분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신영숙(2004)은 위 言志 3수는 1행에서 순박한 풍속이 남아 있음을 제시하고 2행에서는 사람의 인성이 어질다고 제시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별의 <육가>에 드러난 만큼 풍속이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사람의 본성은 어질어서 순박한 풍속을 쉽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1, 2행의 내용은 3행에 와서 천하의 허다한 영재를 속일 수 없다는 말로 강조되며 <육가>에서 보인 세상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냉소주의가 <도산십이곡>에서 극복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온유둔후라고 하였다.<sup>22)</sup>

생경하게 주제를 노출하지 않고 짧은 형식 안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성정 및 풍속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간의 본성 및 풍속에 대한 고찰은 哲理에 속하는 문제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理의 세계이다. 만물에 현상으로 존재하는 氣에 선행하고 포괄하는 理를 노래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이념미를 자연과 인간 성정의 하나됨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조선조 사림은 본래 자연의 이법을 ‘理’의 세계로 보고 자연에서 삶의 본질적인 원리를 연구하였다.<sup>23)</sup> 퇴계의 사람 본성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글을 통해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22) 신영숙(2004), 「육가계 시조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31-32

23) 손오규(2012),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p.67.

임은(林隱) 정씨(程氏)가 말하기를, “소위 마음이 성(性)과 정(情)을 거느리고[統] 있다는 것은, 사람이 오행(五行)의 빼어남[秀]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말이니, 그 빼어남에서 오성(五性)이 갖추어져 있고, 오성이 동(動)하는 데서 칠정이 나오는 것이므로, 대개 그 성·정을 거느리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적연(寂然)히 움직이지 아니함이 성이 되는 것은 마음의 근본[體]이요, 감통(感通)하여 정(情)이 되는 것은 마음의 도구[用]이다.”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마음이 성과 정을 거느린다는 말이 마땅하다. <중략> 마음이 성을 거느리지 못하면, 그 미발지중을 극치로 할 수 없어서 성이 뚫어지기 쉽고, 마음이 정을 거느리지 못하면, 그 중절지화를 극치로 할 수 없어서 정이 방탕하기가 쉬울 것이니,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서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성을 기르고 그 정을 절제하면, 배우는 방법이 얻어질 것이다.” 하였다.<sup>24)</sup>

위 글은 퇴계집에 실려 있는 <심통 성정 도설(心統性情圖說)>의 일부분이다. 인간의 마음은 성, 정을 거느리고 있으며 인간은 본래 오행의 빼어남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것은 言志 3수에서 드러나는 이황의 성선설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성과 정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면 방탕해질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즉 이황은 선한 마음을 타고났지만 성, 정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수양에 게을리하는 선비들에 대해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마음을 다스리기를 권고한 것이다. 言志 3수처럼 인간의 본성에 대해 논한 한시 작품으로는 <詠松>이 있다.

<詠松(영송)>

돌 위에 자란 천년 묵은 不老松  
 마치 푸른 비늘 우굴쭈굴한 용의 기세로구나  
 까마득한 높은 벼랑에 우뚝 자라나서  
 기세는 하늘을 쓸어낼 듯 준본을 내리누르는 듯

24) 편집부 저(1968), 『국역 퇴계집 I』, 민족문화추진회 p.147-148.

울긋불긋 사치스러움이 본성을 상케 함을 원치 않으니  
 桃李의 아름다운 자태를 기꺼이 따르겠는가  
 깊디깊은 뿌리 龜蛇의 기골을 키웠으니  
 한겨울 눈서리에도 그 모습 의연하도다<sup>25)</sup>

石上千年不老松(석상천년불노송)  
 蒼鱗蹙蹙勢騰龍(창린척척세등룡)  
 生當絕壑臨無底(생당절학임무저)  
 氣拂層霄壓峻峯(기불층소압준봉)  
 不願靑紅戕本性(불원청홍장본성)  
 肯隨桃李媚芳容(궁수도리미방용)  
 深根養得龜蛇骨(심근양득구사골)  
 霜雪終教貫大冬(상설종교관대동)

성선설에 대한 이황의 생각은 위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답지만 찰나의 시간 동안만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도리화와 사계절은 물론 오랜 시간 동안 푸름을 유지하는 소나무를 위 言志 3수와 같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深根養得龜蛇骨’, ‘霜雪終教貫大冬’에서 깊숙한 뿌리를 통해 겨울을 이겨내는 소나무를 표현한 부분은 言志 3수에서 제시된 것처럼 순박한 풍속이 유지될 수 있고 본래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는 이황의 유학적 관점이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퇴계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유학적 가치관을 자연과 합일된 賞心을 통해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유학적 이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를 유도하고 있다.

25) 이황, <詠松>(손오규(2002), 『퇴계시가예술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p. 111.)

### Ⅲ. 陶山十二曲의 敎訓性

#### (1) 言志와 산수 은거의 이상

言志 여섯 수는 도십십이곡 전육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연에 은거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서 표현하였다. 여기서는 言志 부분의 주제를 응축하고 있는 도십십이곡 言志 6수를 중심으로 퇴계가 자연에 대한 서경미와 서정미를 조화시켜 주제와 교훈성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言志의 내재된 뜻을 알기 위해 퇴계의 한시 작품과의 관련성을 살펴봄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가고자 한다.

<陶山言志(도산언지)>

기쁘도다 내 산집 반은 하마 이뤄졌네  
산중살이 오히려 농부는 면했다오  
책을 옮겨 차근차근 묵은 책장 거의 비고  
대 심어 보고 보니 새 죽순 돌아나네  
샘소리 드높은들 밤의 고요 해로우리  
산빛이 아름다워 개인 아침 더욱 좋네  
알괘라 예로부터 숲속에 깃든 선비  
온갖 일 모두 잊고 이름마저 숨기고저<sup>26)</sup>

自喜山堂半已成(자희산당반이성)  
山居猶得免躬耕(산거유득면궁경)  
移書稍稍舊龕盡(이서초초구룡진)

26) 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84

植竹看看新筍生(식죽간간신순생)  
未覺泉聲妨夜靜(미각천성방야정)  
更憐山色好朝晴(경린산색호조청)  
方知自古中林士(방지자고중림사)  
萬事渾忘欲晦名(만사혼망욕회명)

위 한시는 도산십이곡이 지어지기 이전에 퇴계가 쓴 한시로 퇴계가 도산서당을 지어 후학을 양성할 즈음에 지은 작품이다. 산집이 반이나 지어졌다는 것은 도산서당이 반이나 지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산에서 농사짓는 것도 물론 좋은 삶이지만 농부보다는 학문에 더 힘쓸 수 있는 삶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을 심은 대나무에 죽순이 돌아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샘 소리는 적막한 고요를 해치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에는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세속에 일을 잊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퇴계는 후학을 양성하며 자연에 지속적으로 은거하고 싶어 했지만 명종의 총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직을 제수 받고 거절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느낀 감정을 토대로 세속에서의 삶보다 자연 속에서 학문에 탐구하고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삶이 더 즐겁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퇴계에게 자연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정진의 장소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春風에 花萬山하고 秋夜에 月萬臺라  
四時 佳興이 사롭과 흥가지라  
흥물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니 그지 이시리<sup>27)</sup>

27)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3.

言志 6수는 전육곡 마지막 수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언저 부분에 제시된 뜻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言志 작품들과는 다르게 경물에 대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개개 경물에 초점을 두기보다 경물들을 통합하는 시간적 개념인 계절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초장에서는 봄의 경치를 표현하는 花萬山과 가을의 경치를 나타내는 月萬臺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간단한 시어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중장의 ‘四時佳興’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두 단어는 계절의 대표하는 경물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즉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봄과 가을의 정경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한 폭의 그림처럼 독자 및 창자의 머릿속에 형상화되도록 초장에서 대구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봄바람이 불어 산이 꽃으로 물들고 가을밤에 달빛이 가득한 누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제시하여 독자들 또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자연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봄과 가을은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과 저무는 계절이라는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각각 생명과 조락이라는 상반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퇴계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이라는 계절을 선택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봄과 가을을 소재로 하여 퇴계가 지은 한시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 <感春(봄 느낌)>

맑은 새벽 아무런 일이 없어서  
옷 헤치고 서쪽 마루 앉아 있자니  
아이 종이 트랙을 깨끗이 쓸고  
적막한 속에 도로 문을 가리네

가는풀은 그윽한 섬돌에 나고  
봄동산 여기저긴 좋은 나무들  
이 비 전엔 살구 꽃도 성글더니만  
밤 사이 복사꽃이 변화도 하네<sup>28)</sup>

清晨無一事(청신무일사)  
披衣坐西軒(피의좌서헌)  
家僮掃庭戶(가동소정호)  
寂寥還掩門(적료환엄문)  
細草生幽砌(세초생유체)  
佳樹散芳園(가수산방원)  
杏花雨前稀(행화우전희)  
桃花夜來繁(도화야래번)

위 시는 봄을 맞아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한 한시 중 일부이다. 수많은 자연물 중 풀과 나무, 살구꽃, 복사꽃과 같은 자연물을 끊어내어 작품으로 끌어들이고 생명에 약동하는 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이황은 봄을 표현할 때 약동하는 생명에 초점을 두어 시작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秋日燈臺(가을 날 대에 오르다)>

세상을 나가 봤자 좋은 친구 벗할 수 없고  
외로운 삶 도리어 뜻 꺾일까 두렵구려  
푸른 산은 자세 높아 친압하기 어려운데  
백발은 질어가니 차츰 역겹지 않네  
즐거운 일은 응당 찾는 데서 얻겠지만

28) 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5.

시름찬 애야 어찌 생각으로 돌려지랴  
창랑이라 좋은 지경 하늘이 열었으니  
풍월의 회포를 조대에 부치노라<sup>29)</sup>

出世能無友善才(출세능무우선재)  
索居恒恐壯心頹(삭거항공장심퇴)  
靑山巖巖終難狎(청산억억종난압)  
白髮森森漸不猜(백발삼삼점부시)  
樂事只應尋處得(악사지응심처득)  
愁腸那復念時回(수장나부념시회)  
天開絕勝滄浪境(천개절승창랑경)  
風月襟懷付釣臺(풍월금회부조대)

이 시에서 가을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인간적으로 느끼는 고뇌를 표현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원숙미와 더불어 가을날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의 한시에서 볼 수 있듯이 봄과 가을은 본질적으로 지닌 계절적 속성으로 인해 생명의 약동을 동반한 설레임과 조락을 통한 쓸쓸함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인간 세상의 이치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인간의 인생이 청춘과 노년, 상승과 하강이 있는 것과 같다. 즉 이황은 산수 은거의 과정에서 자연의 순환성을 보며 인간사의 이치를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은 言志 6수 중장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흥취는 사람과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순리와 인간이 분리되지 않고 합일되어 하나가 되는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초장, 중장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해 살펴보

29) 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275.

았다면 종장에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자연을 나열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魚躍鳶飛’는 지상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고 ‘雲影天光’은 하늘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인 구조를 통해 자연의 이치는 땅과 하늘에 두루 퍼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독자가 가창 및 읽는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설의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즉 독자 스스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고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며 산수 은거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 (2) 言學과 학문 완성 의지

言學 6수는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와 즐거움을 노래한 言志 6수와는 달리 학문에 대한 이황 자신의 견해를 자연물과 합일된 경지로 표현하였다. 이황은 학문에 대한 완성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여러 시가 작품에서 표현해 왔다.

### <勤學(근학)>

세월이 흘러 지금 얼마이더뇨  
눈에 심은 저 벼를 그대는 보게  
아무쪼록 자신이 분발해야만  
비늘허물 바뀌어 용이 되느니  
여러 가지 경(經)이랑 많은 사(史)에다  
공력을 쌓아 쌓아 굳건히 하오  
한 치 그늘 헛되이 버리질 말고  
저는 걸음 막 쉴 적 채찍 당기게<sup>30)</sup>

歲月今幾何(세월금기하)  
來看禾樹畹(내간화수원)  
要須更自奮(요수경자분)  
鱗甲變蜃蛻(인갑변연원)  
諸經及諸史(제경급제사)  
功緒極縑綆(공서극견권)  
寸陰莫虛擲(촌음막허척)  
掣鞭方休蹇(철편방휴건)

<勤學(근학)>의 일부분이다. 세월이 가는 줄 모르게 이미 많이 흘러 버렸다는 것을 제시하여 인간은 시간 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학문에 대한 정진의 결과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누구든 정진하는 과정에서 회의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을 갖게 된다.

이황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농민들이 일 년 동안 일한 노력의 결과로 벼가 무르익어 수확할 계절이 오고 이무기가 오랜 시간 동안 인내를 거쳐 용이 되는 것을 예로 들며 노력 여하에 따른 학문 정진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많은 서적을 탐독하며 지식 체계를 굳건하게 하고 학문에 대한 정진에 대해 망설이는 자신을 채찍질하여 꾸준히 자신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도산십이곡의 후육곡 言學 부분에서도 위의 한시처럼 꾸준히 학문에 수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학문에 수양하기를 바라면서도 속세와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연의 이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상황과 원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자연현상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의지를 투영하여 후학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

30) 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247.

愚夫도 알며 흐거니 그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못다 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주를 몰래라<sup>31)</sup>

위 言學 6수 역시 言志 6수와 마찬가지로 후육곡 전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초장과 중장에서 대구법을 통해 학문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고 행할 수 있을 만큼 쉽기도 하지만 성인도 평생 정진해도 다 이해하고 행하기 어렵다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이황의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선생이 일찍이 상사 황(黃)씨를 찾아가 심경부주(心經附註)를 보았더니, 그 주석은 모두 정(程)·주(朱)의 어록(語錄)이어서 다른 이는 보고 구두점(句讀點)조차 떼지 못했다. 선생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 달을 들어 앉아서 연구를 거듭하였더니 저절로 알 수 있었다. 혹시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억지로 알려 하지 않고, 우선 한 쪽에 미루어 두었다가 때를 따라 다시 들춰 내어 마음에 단 생각없이 오로지 <이 몰랐던 것만> 음미하는데 몰두하여, 드디어 통하지 못한 곳이 없었다.

선생은, “나는 심경(心經)을 얻은 뒤로, 비로소 심학(心學)의 근원과 심법(心法)의 정밀하고 미묘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이 책을 믿기를 신명(神明)과 같이 알았고, 이 책을 공경하기를 엄한 아버지같이 한다.”하였다.<sup>32)</sup>

위 글은 언행록(Ⅰ) 유편 중 <학문>의 일부분으로 이황의 제자 이덕홍이 이황에 대해 적은 부분이다. 심경부주(心經附註)의 주석을 해독하는 데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내는 것과 달리 이황은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를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황이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31)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6.

32) 편집부 저(1968), 『국역 퇴계집Ⅱ』, 민족문화추진회, p.221-222.

모르는 것은 잠시 제쳐두었다가 다시 필요할 때 들여다보고 음미하며 이해하는 자세는 사과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즉 이는 자연의 이치와 비견할만하다. 물의 흐름을 역지로 막아 독을 만들면 허물어지고 바람의 흐름을 막는 담이 센 바람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황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言學 6수의 초장, 중장을 다시 살펴보면 초장에서 ‘愚夫’는 학문에 대한 탐구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진정한 이해 없이 단순히 책의 내용만을 암송한 뒤 자신이 마치 학문에 정통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황은 이러한 선비들도 학문에 대한 이해가 미천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할 터이고 학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존중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황의 인품과 뜻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끊임없이 학문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여도 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기 어려워 마치 책을 ‘아버지’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그의 태도는 중장의 학문의 어려움을 표현한 구절과 일맥상통한다.

즉 퇴계 이황은 자신이 학문에 대해 어느정도 뜻을 두는가에 따라 학문은 아주 쉬울 수도 아주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를 言志 6수에 반영하여 표현한 것이다.

중장에서 이러한 것이 학문의 본질이니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해야 함을 표현하고 있다. 즉 자연과 하나가 되어 나이와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학문에 대한 불변의 자세는 다음 한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槃陀石(반타석)>

북적 물결 넘실덜 쟈 형체를 숨기더니

맑은 물 갈았자 분명히 나타나네  
내리닫고 치부딛는 저러한 속에서도  
천년이라 역센 돌은 기울거나 굴절 않아<sup>33)</sup>

黃濁滔滔便隱形(황탁도도편은형)  
安流帖帖始分明(안류첩첩시분명)  
可憐如許奔衝裏(가련여허분충리)  
千古盤陀不轉傾(천고반타불전경)

위 작품은 이황이 60세 때 지은 한시로 물결이 거셀 때에도 휩쓸리지 않으며 물결이 차분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형용하게 드러내는 바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학문에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言志 6수를 위 한시와 연관 지어 이해하면 위 한시의 중심 제재인 바위처럼 굳건하게 변하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며 후육 양성을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후학들도 자신과 같은 길을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황의 학문에 대한 자세는 현대 독자들에게도 공감될 만큼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함의하고 있다.

### 3. 溫柔敦厚와 인격 수양

퇴계는 도산십이곡 발에서 이별의 <육가>의 형식을 본받으면서도 완세불공한 뜻이 있고 온유둔후한 뜻이 없음을 비판하였다. 여기서 온유둔후는 어석적으로 풀이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터운 성품을 일컫는 말이며 예로부터

33) 이황, <陶山雜詠 中 槃陀石>(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29.)

문학에서는 시를 창작하는데 기교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노골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도산십이곡>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연 경물을 완상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賞心을 기반으로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노래를 사람들이 즐겨 부르며 스스로 작품에 내재된 의미를 깨우치기를 바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퇴계는 이러한 온유둔후한 표현방식으로 인격수양에 대한 주제의식을 표현하였다. 퇴계는 도산십이곡의 창작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상 <도산십이곡>은 도산노인(퇴계)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 노래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개 음란한 것이 많아 죽히 말할 것이 없으니, <한림별곡>과 같은 종류는 문인들의 입에서 나왔지만 교만하고 방탕한 데다 외설적이고 장난기가 있어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이별(李鰲)의 <육가(六歌)>가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데 그래도 저것이 이것보다 낫다고 하지만, 또한 안타깝게도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한 뜻만 있고, 온화하고 너그러운 뜻이 없다.

노인은 본시 음률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속의 음악 듣기 싫어할 줄은 알았다. 한가하게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성정에 느낌이 있을 때마다 매번 시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악부]와 달라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하지는 못한다. 만약 노래하려면 반드시 속어(俗語)로 엮어야 하니, 대개 국속의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이별의 <육가>를 모방하여 <도산육곡>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첫째 편은 뜻을 말한 것[言志]이고, 둘째 편은 학문을 말한 것[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여 안식에 기대어 듣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게 하면, 거의 비루한 마음을 씻어 버리며 감발하고 융통하여 노래를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한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돌아보건대 자취가 자못 세상과 어긋나 이러한 한가로운 일이 혹 시끄러움을 일으키게 될지 모르겠고, 또 악곡에 올려 음절과 조화를 이루는지 그렇지 않은지 미심쩍다. 우선 한 부를 베껴 궤짝에 넣어 두고 때때로 꺼내어 완상하며 스스로 반성도 하고, 또 훗날 보는 이의 취사선택을 기다리겠다.

가정 44년 을축년(1565) 3월 16일 도산노인이 쓰다.<sup>34)</sup>

이황은 위 ‘도산십이곡 발’에서 경기체가보다는 이별의 육가가 나오나 ‘은유돈후’한 내실이 적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렇게 이황은 다른 사람의 성과를 이으면서도 자신이 취할 것은 취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황이 벼슬길에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황은 당대 어지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을 선배 사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에서 찾았다. 김종직이 현실개혁에 노력하지 않고 시문에만 주력한 것이 불만이었고 조광조가 학문에 대한 탐구 없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급격하게 개혁을 완수하려는 것도 불만이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학문의 탐구를 자신의 길로 삼았다. 이황의 학문은 현실을 초월하지 않으며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유학의 원리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다. 어지러운 현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하여, 근본을 개혁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sup>35)</sup>

이러한 자세가 문학에도 반영되어 이별의 <육가>에 드러나는 단점들을 개선하여 <도산십이곡>을 창작한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한 뜻”이 드러난다고 했는지 작품을 직접 보며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六歌(육가)>

내 이미 백구 잊고 백구도 나를 잊네.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꼬.

我已忘白鷗白鷗亦忘我(아이망백구백구역망아)

二者皆相忘不知誰某也(이자개상망부지수모야)

34)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7.

35) 신연우(2006), 『이황 시의 깊이와 아름다움』, 지식산업사, p.47

何時遇海翁分辨斯二者(하시우해옹분변사이자)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맛이랴.  
세상에 득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赤葉滿山椒空江零落時(적엽만산초공강령락시)  
細雨漁磯邊一竿眞味滋(세우어기변일간진미자)  
世間求利輩何必要相知(세간구리배하필요양지)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려문,  
네 귀를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  
공명은 혜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吾耳若喧亂爾瓢當棄擲(오이약환란이표당기척)  
爾耳所洗泉不宜飲吾犢(이이소세천불의음오독)  
功名作弊屢脫出遊自適(공명작폐구탈출유자적)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뤄 달 가두고,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어떠한 세상사람도 청탁을 모르래라.<sup>36)</sup>

玉溪山水成潭是貯月(옥계산하수성담시저월)  
淸斯濯我纓濁斯濁我足(청사탁아영탁사탁아족)  
如何世上子不知有淸濁(여하세상자부지유청탁)

36) 최재남(1987), 「'육가'의 수용과 전승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 326-327.

이별 육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수는 자연 속에서 백구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읊었고 두 번째 수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세속에 있는 부정적인 인물들이 자연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세 번째 수는 소유와 허부의 고사를 이용하여 부귀공명과는 거리를 두고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네 번째 수는 세상에서 단절된 곳에 지내는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며 종장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황이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한 뜻”이 있다고 한 것은 위 작품에서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황은 시조의 목적이 세상에 대한 비판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르며 스스로 감의할 수 있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여겼으며 시조의 담긴 뜻도 직접적으로 작품 전면에 드러나는 것보다 계속해서 되뇌고 부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을 중요시했다.

雷霆이 破山호여도 龔者는 못 듣느니  
 白日이 中天호야도 瞽自는 못 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 男子로 龔瞽갓지 마로리<sup>37)</sup>

퇴계의 <도산십이곡> 言學 2수에서는 ‘雷霆이 破山호야도’, ‘白日이 中天호야도’와 같이 객관적인 자연현상을 제시하고 뒤에 ‘龔者는 못 듣느니’, ‘瞽自는 못 보느니’라는 인간사의 현상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초장과 중장만 보았을 때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물을 통해 촉발된 주관적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중장에서 ‘耳目聰明 男子’로서 ‘龔瞽’갓지 말자는 주관적 뜻을 나타냄으로써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조그마한 사물의 움직임도 관찰하는 성현이 되자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귀와 공명과 같은 사사로운 이익을 좇는 과정에서 인간이 지켜야할

37)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4.

도리를 외면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모든 인간사에서 겪는 일들을 통찰하자는 뜻을 전하고 있다.

즉 言學 2수는 천둥 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聾者’와 밝은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보지 못하는 ‘瞽自’와 눈도 밝고 귀도 밝은 ‘男子’를 대조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항상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다스려 주변 상황 및 세태에 귀 기울이고 주의 깊게 관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별의 <육가>와 달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설명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읽고 부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자연물과 인간의 감정이 합치된 상심을 중심으로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문학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황의 한시 중 주변 자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예찬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다음 작품이 있다.

<濂溪愛蓮(염계애련)>

진리를 밝히라고 하늘이 선생 내어  
조출한 그 가슴은 먼지 자국 한점 없네  
맑고 통한 아름다운 저 연(蓮)을 사랑하니  
꽃 중의 군자(君子)라 묘하여 말이 없네<sup>38)</sup>

天生夫子關乾坤(천생부자벽건곤)  
灑落胸懷絕點痕(쇄락흉회절점흔)  
却愛淸通一佳植(각애청통일가식)  
花中君子妙無言(화중군자묘무언)

위 한시에는 흔히 볼 수 있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작은 존재인 연꽃에 초점을 두고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물을

38) 이황, <濂溪愛蓮>(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16.)

인간이 본받아야 할 군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연꽃과 자신의 가치관이 결부되어 도출된 상심을 통해 삶의 교훈 및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생명과 사물에 깃들여 있는 삶의 교훈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言學 2수에 응축하여 제시함으로써 후학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귀를 갖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꾸준한 내면 수양을 통해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는 자세를 갖추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별의 육가는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치고 타이르듯이 세속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반대로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수평적 관계에서 마치 벗에게 이르듯이 친숙하게 다가감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감화되기를 유도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작품에 드러난 ‘온유돈후’의 경지인 것이다.

## IV. 陶山十二曲의 文學史的 의의

### 1. 한국 산수문학의 完成과 시조 창작

퇴계 전과 퇴계 후의 산수문학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이황은 산수문학사의 큰 획을 그었다. 여기서는 <도산십이곡>과 이황 이전의 시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산수문학사 중 도산십이곡의 의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퇴계가 속하였고 자연 안에서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리 및 학문의 실천에 대해 궁구하였던 영남가단에 속한 문인들의 시조와 비교하여 도산십이곡의 산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龔巖에 올라 보니 老眼이 猶明 ] 로다  
人事이 變흔들 山川이썸 가실가  
岩前에 某水某丘이 어제 본듯 ㅎ예라<sup>39)</sup>

위 작품은 농암 이현보가 지은 시조로 오랫동안 머물던 벼슬길에서 물러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쓴 시조이다. 이현보는 자신의 고향 주위에 있는 바위에 ‘龔巖’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조를 지었다. 초장에서는 농암에 오르니 벼슬길에서 좌천과 복위 및 여러 일을 겪으며 혼탁해진 자신의 마음이 맑아짐을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人事’, ‘山川’ 두 가지의 공간을 대조시키며 인간의 세속은 일관성 없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자연은 이와 달리 변함없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오랜만에 본 자연경관이 어렸을 때 보았던 자연

39) 심재완(1972),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p.245.

의 모습과 변함없음을 나타내며 자연에 돌아온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영남가단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이현보의 <농암가>는 인간 세속에 대한 비판 및 자연 완상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황의 <도산십이곡>과 유사하지만 인간의 성정과 자연이 합치되는 과정을 그려내지 못하고 자연에 은거하여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하는데 치우쳤다는 한계가 있다.

이현보의 <농암가>에서는 자연이 주관적인 흥취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인간이라는 한 개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자연이 귀속된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계의 산수는 어디까지나 화자의 정서에 의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 본래의 모습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實在의 眞山眞水를 표현하고 있다.

퇴계의 <도산십이곡>에 표현된 자연은 인간에 귀속되거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적 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연 그 자체에 존재하는 의미를 토대로 본질적으로 내재된 ‘理’를 인간이 깨달아 가는 삶의 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幽蘭이 在谷호니 自然이 듣디 조희  
白雪이 在山호니 自然이 보디 조해  
이 중에 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호애<sup>40)</sup>

초장과 중장의 ‘幽蘭이 在谷호니’와 ‘白雪이 在山호니’는 난초의 그윽한 향을 맡으며 골짜기에 난초가 피었다는 소리가 듣기 좋으며 흰구름이 걸쳐있는 산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자연 속의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으로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대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현보 시조의 초장처럼 자연 경물의 모습을 집중과 배제를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듣디 조해’와 ‘보디 조해’와 같은 경우에는 앞의 자연에 대한 작가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40)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2.

언뜻 보기에는 두 시조 모두 자연현상에 대한 객관성을 나타내는 점에서 작품의 경지가 동일하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종장에서 이 두 작품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彼美一人’의 어석적 풀이 그대로 ‘저 아름다운 한 여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의미이며 도학자이자 사대부의 입장에서 다른 대상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타 산수 시가에서 자연 속에서 지내며 속세와 떨어져서 지내면서도 세속과 임금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이를 문학 작품에 표현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임금에 대해 언급한 작품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맹사성의 <江湖四時歌>가 있다.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濁醪 溪邊에 錦鱗魚 | 안쥬로다

이 몸이 閒暇히움도 亦君恩 이샷다<sup>41)</sup>

위 작품은 자연 속에서 지내며 느끼는 흥취를 초장과 중장에 나란히 제시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몸이 閒暇히움도 亦君恩이샷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임금의 덕택이라며 자연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충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문학성 측면에서 봤을 때 맹사성의 <江湖四時歌>에서는 ‘亦君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대상인 임금을 표면에 제시하여 함축성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言志 3수는 ‘彼美一人’이라는 간접적 표현으로 대상을 지칭함으로써 작품의 맥을 끊지 않고 의미의 함축성을 추구하고 있다.

여타 산수 문학이 일반적으로 연군지정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해서 ‘彼美一人’을 임금으로 해석하기에는 위 초장과 중장에서 세상에 대한 근심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종장을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해석한다면 <도산십이곡>은 어쩔 수 없

41)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18.

이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은거하여 임금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한 심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산십이곡 작품의 전체적 흐름 및 통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위 言志 4수만이 그러한 주제의식을 나타낸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言學 3수와 연결 지으면 산수와 학문에 뜻을 두어 이치를 탐구했던 선인들을 표현한 ‘古人’을 ‘彼美一人’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즉 이현보의 <농암가>가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표현하는데 치우친 것과 달리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에 치우치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문과 진리 탐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작품 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 ‘彼美一人’은 전육곡 및 후육곡 전체적 내용을 고려하여 해석했을 때 학문적으로 존경할 업적을 남긴 ‘현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초장, 중장만 보면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만을 서술한 것으로 보이던 내용이 종장에서 제시된 ‘彼美一人’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이 수에서 제시된 자연 경물은 선대 현인들을 떠올리며 이치를 궁구하는 장소로서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淸風 혼 간 맞져 두고  
江山을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sup>42)</sup>

위 시조는 호남학파의 대표 학자인 송순의 시조이다. 자연에서 도학을 찾기보다는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와 풍류 표현에 초점을 두었던 호남학파의 일관적 모습과 부합하듯이 위 시조에서는 달, 바람, 강산과 같은 자연물을 나열하며 함께 지낸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유학적 가치관에 대한 언급 없이 자연 풍류의 즐거움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이황의 <도산십이곡>과 차이가 있다.

42)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217.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봐  
古人을 못 봐도 너든 길 알피 잇네  
너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너고 엇절고<sup>43)</sup>

言學 3수는 선대에 많은 업적을 남긴 학자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초장에서 제시하고 있고 중장에서는 ‘古人’을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古人’이 가던 길이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言學 1수와 관련지어 생각했을 때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학자들이 생전에 지었던 책을 탐독하는 과정을 통해 선조들의 생애와 학문의 경지를 간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길’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중장에서는 선대 학자들이 가던 길이 앞에 놓여 있으니 아니 갈 수 없다는 것을 설의법을 통해 독자 스스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즉 선대 학자들이 남겨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후학들이 학문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학자에 대해 다루고 있어 도산십이곡 言學 3수와 관련지을 수 있는 작품으로는 다음 작품이 있다.

<書徐處士花潭集後(서서처사화담집후)>

한탄스럽네, 화담의 늙은이여!  
지금 나와는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네.  
몸가짐 성현과 철인에 의거하여,  
사물 관조하며 술개 날고 물고기 뛰어놀 즐겼네.

43) 위의책, p.35.

갓 터는 손에 기대지는 않지만,  
어찌 달 끼고 호미 들고 오는 것 버리랴?  
그때에 만약 만나 볼 수 있었다면,  
열 해 동안 책 읽는 것보다 나았으리!44)

嘆息花潭老(탄식화담로)  
于今永我疎(우금영아소)  
抗身依聖哲(항신의성철)  
觀物樂鳶魚(관물락연어)  
不藉彈冠手(부차탄관수)  
寧拋帶月鋤(영포대월서)  
當年如得見(당년여득견)  
勝讀十年書(승두십년서)

위 한시는 퇴계가 서경덕의 문집 ‘花潭集’을 읽고 난 후 지은 시이다. 책을 읽는 것보다 생전에 한 번 만났다면 10년 독서한 것보다 나았을 것이라며 선대 현인에 대해 이황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황은 독서를 통해 다른 학자의 삶과 학문의 경지를 탐독하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한시를 통해 학문의 정진을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과 부합하는 학자들의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상과 의견을 지닌 학자들의 책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임을 이황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길’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도산십이곡>은 이전의 산수문학에 비해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44) 이황, <書徐處士花潭集後 三首 중 두 번째 시>(이장우 외 1명(2007), 『퇴계시 풀이 2』, 영남대학교출판부, p. 217-218.)

사름 사름 마다 이말습 드러스라  
이말습 아니면 사름이오 사름아니  
이말습 닛디말오 빙호고야 마로렁이다

아바님 랄 나흐시고 어마님 랄 기르시니  
父母웃 아니시면 내모미 업슬랏다  
이덕을 갑꼭려흐니 하늘기 업스샷다

동과 향것과를 뒤라셔 삼기신고  
별와 가여미사 이쁘들 몬져 아니  
흔 므스매 두뽏업시 소기디나 마읍생이다

지아비 받갈라 간디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디 눈섭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님님 자신 저줄 내 조쳐 머궁이다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兄弟웃 不和흐면 개 도티라 흐리라

늘그니는 父母곶고 얼우논 兄기트니  
곶튼디 不恭흐면 어디가 다를고  
랄노셔 므디어시든 절흐고야 마로렁이다<sup>45)</sup>

위 작품은 영남학과의 한 사람인 주세봉이 지은 <오륜가>이다. 오륜가는 배움의 깊이와 상관없이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다섯

45) 심재완(1969), 『古時調千首選』, 螢雪出版社, p.22-23.

가지 덕목인 ‘五倫’을 각 연마다 나열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첫수는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작품 창작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널리 읽어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수는 자신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갚아나가야 한다는 父子有親의 덕목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수는 君臣有義의 덕목을 설명하고 있다. ‘종’과 ‘항것’의 관계 즉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에서 불충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늘과 같이 무한한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네 번째 수는 夫婦有別의 덕목을 설명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지아비에게 손님과 같은 예를 갖춰 대하라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수는 兄弟友愛의 덕목을 설명하고 있다. 형이 먹은 어머니의 젖을 동생이 이어 먹는다고 하며 동생이 어머니의 사랑임을 표현하는 형의 말과 더불어 형과 동생의 우애가 깨어져 불화하게 되면 개, 돼지와 다름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 번째 수는 長幼有序에 대한 덕목을 설명한 것으로 노인과 어른을 각각 부모, 형과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부모와 형을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르지 않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공경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주세붕은 교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으로 오류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함축성이 없어 이면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학성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理’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 작품에 드러나 있지 않아 주제를 생경하게 노출함으로 인해 받아들이는 독자와 청자의 감화를 일으키기 부족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수에 드러난 ‘하늘’이라는 자연물도 오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이상의 의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황은 주세붕과 달리 유학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의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독자가 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이 합치된 형태로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문학적 독자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현보, 주세붕, 퇴계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학통 중에서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중요시했던 이현보와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리를 중요시했던 주세붕의 장점만을 수용하여 완전함을 갖춘 퇴계의 등장<sup>46)</sup>은 이후 산수 문학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

산수 경물을 매개로 한 서경미와 서정미가 결합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통한 주제의식의 표출 방식은 도산십이곡이 완전한 산수문학의 표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이유가 되었고 후대 문인들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2. 사대부 시가의 정형성 확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황은 서경미와 서정미의 조화를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이를 <도산십이곡>을 통해 공고히 하였다. 이황은 후학이 많았을 뿐더러 같은 학파가 아니더라도 많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황의 행보는 많은 학자들의 귀감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영남학파 중 이황의 제자인 학자들을 포함한 여러 작가들의 시조를 살펴보며 <도산십이곡>에서 확립된 정형성이 후대 시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학자는 松巖 權好文으로 권호문은 30세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속세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에 은거하며 학문과 내적 수양에만 초점을 두고 생을 다한 인물로 퇴계 문인 중 대표적 인물이다.

권호문의 <閑居十八曲>은 그가 자연에 은거하며 만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창작한 작품으로 자서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sup>47)</sup>

46) 조동일(2009),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p.337-338.

47) 최선미(1995), 「松巖 權好文 詩歌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43.

計校 이르더니 功名이 느저세라  
負笈東南호야 如恐不及호는 聃을  
歲月이 물 흘으듯 호니 못 이룰가 호야라<sup>48)</sup>

閑居十八曲 2수에서는 초장에서 벼슬길에 나가기 늦었다며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인데 왜냐하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장에서는 논어의 구절을 이용하여 공부의 때를 놓칠까 두렵다고 하고 중장에서 세월을 물의 흐름에 빗대 표현하며 세월이 빨리 지나가므로 자신이 학문에 둔 뜻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설의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적 의미를 해석했을 때 초장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입신양명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當時에 녀든 길흘 몇 희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든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 디 믿음 마로리<sup>49)</sup>

閑居十八曲 2수는 言學 4수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言學 4수 초장에서 ‘當時에 녀든 길’은 젊었을 때 학문에 정진했던 시기를 뜻한다. ‘몇 희를 버려 두고’는 벼슬길에 올라 학문에 정진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중장에서는 벼슬길에서 해마다 늦게나마 학문에 다시 정진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중장에서의 내용을 연쇄법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학문 정진을 위해 돌아왔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곳에 마

48) 권호문(2018), 『송암집5』, 도서출판 드림, p.171.

49)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5.

음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마무리하고 있다. 言志 4수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한시 작품으로는 다음이 있다.

<自歎(자탄)>

가버린 세월이니 내사 의당 아깝지만  
당면한 일 많은데 그대는 왜 슬퍼하나  
한 삼태기 산이 되는 그 날을 한정 삼아  
미적대지 말고 서둘도 너무 마소<sup>50)</sup>

已去光陰吾所惜(이거광음오소석)  
堂前功力子何傷(당전공력자하상)  
但從一簣爲山日(단종일궤위산일)  
莫自因循莫太忙(막자인순막태망)

후학에게 전하고 싶은 뜻을 반영하여 지은 시로 자신은 이미 늙어 학문에 꾸준히 정진하기 힘들지만 후학들은 늦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학문에 정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문의 길은 단번에 오를 수 없는 힘든 길이지만 서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하고 있다.

위 한시와 言學 4수를 연결 지어 봤을 때 세속에서 관직을 맡아 수행하느라 이제까지 자연에 은거하여 학문 탐구에 정진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늙었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를 모두 바쳐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보고 후학들이 이를 따라 젊었을 때부터 벼슬과 권력에 유혹되지 말고 학문에 꾸준히 정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0) 이항, <金而精出遊陶山留宿 明早見奇三絶 次韻卻寄 中 自歎>(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46.)

권호문의 시조와 이황의 시조를 비교했을 때 벼슬 생활을 하지 않고 벼슬에 나갈 시기를 놓쳤으니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작품 내외 상황적 맥락을 제외하고는 두 작품의 주제의식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아 이황의 시조가 제자인 권호문의 시조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날이 저물거늘 느외야 홀 닐 업서  
松關을 닫고 月下에 누어시니  
世上에 뜻글 막음이 一毫末도 업다<sup>51)</sup>

閑居十八曲 13수의 초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며 날이 저무는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화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설정되어 있다. 중장에서는 사군자의 하나인 소나무를 제시하여 군자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립문을 걸어 잠구고 달 아래 누운 모습에서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현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중장에서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공명과 부귀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선경후정의 시상전개방식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장에서 ‘世上에 뜻글 막음’은 입신양명 및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마음이며 이러한 마음이 ‘一毫末도 업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벼슬에 합격하고도 정계에 진출하지 않았던 작가의 전기적 생애를 고려했을 때 이는 독자에게 진실성을 얻기에 충분하다.

閑居十八曲 13수는 言志 2수와 연결 지을 수 있다. 言志 2수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벗으로 삼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권호문의 시조의 초장, 중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중장에 등장하는 ‘허물’은 세속의 이익을 탐하지 않겠다는 퇴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므로 권호문 시조의 중장과 의미가 통함을 알 수 있다. 즉 권호문은 퇴계 <도산십

51) 권호문(2018), 『송암집5』, 도서출판 드림, p.176.

이곡>의 영향을 받아 세속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를 시조에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초 난초 가꾸려고 어깨에 호미 메고  
전원 돌아 살펴보니 절반이 가시로다  
아해야 이 김 다 매기전에 해저물까 하노라.<sup>52)</sup>

위 시조는 강익의 시조이다. 우의적 기법이 전체적으로 사용된 작품으로 초장에서 지초와 난초를 가꾸기 위해 호미를 둘러맸다는 표현은 올바른 학문의 길에 대한 정진 또는 자신의 내면을 다듬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장에서 전원이라는 산수 배경을 제시하고 가시가 가득하다고 설정한 것은 학문의 길 또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장애물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장에서 작품 내 청자를 설정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없애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해가 저문다는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강익의 시조에서는 자연환경이 화자의 감정 중심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寫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황의 시조와 차이가 있지만 도산십이곡처럼 학문 수양에 지속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자연물을 통해 비롯된 ‘賞心’을 중심으로 나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강익의 시조는 이황 시조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논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논 내 分인가 흐노라

보리밥 풋늬뭇을 알마초 머근 後에

52) 강익(2010), 『介庵文集』, 함양문화원, p.151.

바윗곳 뭉긔의 슬긔지 노니노라  
그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잔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 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묻내 묘하 흐노라

누고셔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로 헤어든 巢父許由 | 약뎛더라  
아마도 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人間萬事를 혼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득토리 업슨 江山을 덕회라 흐시도다

江山이 묘타 흔들 내 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尹善道 <漫興>53-

위 작품은 윤선도의 <漫興>으로 병자호란이 끝난 후 유배에서 풀려나 해남 금쇄동에 있을 때 창작한 시조이다. 첫 번째 수부터 다섯 번째 수까지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첫 번째 수에서 허름한 집을 짓고 사는 자신의 삶이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자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비칠 수 있지만 자신은 개의치 않고 자연 속에서 살 것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 수에서는 그리던 사람이 온다하여도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따

53) 윤선도(2015), 『고산유고4』, 한국고전번역원, p.217-218.

라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며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네 번째 수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삶이 정승과 천자의 삶보다 낫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섯 번째 수에서는 자신이 자연에 머무는 것은 하늘의 뜻이므로 세속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머무는 것에 대한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수에서는 ‘임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자연에서의 삶 역시 임금의 은혜임을 밝히며 연군지정을 표현하고 있다.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당시 사대부 시조에서 하나의 관습처럼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는 <도산십이곡>의 言志 첫수와 유사한 태도를 갖추고 자연에 은거하며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가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泉石膏肓’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윤선도도 산수경물로 인해 촉발된 ‘賞心’을 느꼈으며 이 ‘賞心’과 자연경물이 합치되는 순간 자연의 경물은 정감에 이르게 되고 이 정감은 자연의 경물에 이르게 되어 객관적 상태로 존재하던 산수경물은 윤선도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sup>54)</sup>

이런들 엇더흐며 저런들 엇더흐료

草野 愚生이 이러타 엇더흐료

흐믄며 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흐료<sup>55)</sup>

言志 첫수는 벼슬 생활 후 고향으로 내려와 자연을 즐기는 감정을 의문형 문장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며 표현하고 있다. 벼슬을 버리고 내려온 자신의 처지를 草野愚生으로 표현하여 겸손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뒤에 의문형 어미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을 영위하는 삶의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황은 벼슬 생활 중에서도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에 은거하고 싶다는 마음을 문학 작품에 자주 표현했었다.

54) 손오규(2000),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p.32.

55)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1.

옛 청춘 어디가고 귀밑머리 눈빛이라  
객의 회포 흔들흔들 바람 앞의 깃대 같네  
하공이 오중으로 돌아갈 땅 얻었던들  
두로 어찌 초강 마름 먹는걸 마다하리

鬢雪渾驚失舊靑(빈설혼경실구청)  
客懷搖颺似風旋(객회요양사풍선)  
賀公若得歸吳地(하공약득귀오지)  
杜老寧辭食楚萍(두로녕사식초핑)

못 고기는 원치 양소 파란에 부딪기를  
확삭의 말 안장을 늙은 몸이 감당하리  
사직청원 올리어 윤희를 기다리니  
꿈 혼이 늘 임 계신 대궐에 감도누나<sup>56)</sup>

淵漁不願試衝瀾(연어부원시충란)  
老病何堪矍鑠鞍(노병하감확삭안)  
乞退佇聞天賜允(걸퇴저문천사운)  
夢魂長繞紫宸間(몽혼장요자신간)

위 작품을 창작할 당시 퇴계는 두 번째 사직소를 올리고 임금의 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관직에 있는 삶을 못에 있는 고기에 빗대고 자연에 은거하며 뜻을 추구하는 삶을 파란에 부딪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며 벼슬보다 자연에서의 삶을 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당시

56) 이황, <十三 抵醴泉 再辭待命 呻吟之餘 見軒有己酉經行拙句 有感二絶>(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176.)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재를 다룬 한시로 다음 작품도 있다.

<馬上(마상)>

아침에는 가면서 몸 숙여 맑은 시내 소리 듣고,  
저녁에는 돌아오며 멀리 푸른 산 그림자 바라보네.  
아침에 가고 저녁에는 돌아오며 산수간을 누비니,  
산은 푸른 병풍이요 물은 맑은 거울 같네.  
산에서는 구름 속에 갇든 학이 되고싶고,  
물에서는 물결 타고 노니는 갈매기 되고싶네.  
대나무 부절이 나의 일 그르친 줄도 모르면서,  
억지로 신선 사는 단구에 노닌다고 스스로 일러보네.<sup>57)</sup>

朝行俯聽清溪響(조행부청청계향)  
暮歸遠望靑山影(모귀원망청산영)  
朝行暮歸山水中(조행모귀산수중)  
山如蒼屏水明鏡(산여창병수명경)  
在山願爲棲雲鶴(재산원위서운학)  
在水願爲遊波鷗(재수원위유파구)  
不知符竹誤我事(부지부죽오아사)  
強顏自謂遊丹丘(강안자위유단구)

위 <馬上>은 관직을 맡고 있어 자연에 은거할 수 없으면서도 자연을 즐기고 있다고 믿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난 작품이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던 이황이었기에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는 순간의 즐거움이 더 컸을 것이고 이러한 마음을 言志 첫수 종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7) 이황, <馬上>(이장우 외 1명(2007), 『퇴계시 풀이 1』, 영남대학교출판부, p. 470-471.)

泉石膏肓은 자연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질병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이황 시가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자 표현으로 후대 시가에도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질병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어져 왔다.

도산십이곡에서 질병은 言志 두 번째 수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이황 시가의 질병은 자기 몸의 병과 동시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병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고려해봤을 때 이황이 말하는 병은 육체적 질병을 넘어선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sup>58)</sup>

도산십이곡 이전의 시가에서는 자연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체적 병을 작품 전반에 내세웠을지 모르나 도산십이곡에서의 병은 육체적 병의 의미보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병에 가깝다.

<病中有客 談關東山水 慨然遠想 復和前韻(병중유객 담화관산수 개연원상 복화전운)>

깊숙한 집 세를 들어 저잣소리 멀어지니  
갓개인 늦가을이 한결 더 사랑흡네  
곧곧한 삼(杉)나무는 바람 앞에 우뚝하고  
곱고 고운 국화는 서리 아래 꽃피었네  
산지(散地)에 한가하니 병든 몸 같지 않고  
흥년이라 집이 비니 진청(眞淸)과 흡사하이  
그대 놀던仙境(仙境)이 꿈에도 그리우니  
어느 날 잠(簪) 던지고 호올로 멀리 가리<sup>59)</sup>

賃玉深坊遠市聲(임옥심방원시성)  
端居秋末愛新晴(단거추말애신청)  
風前庭庭杉翹幹(풍전정정삼교간)  
霜下鮮鮮菊秀英(상하선선국수영)

58) 신연우(2006), 『이황 시의 깊이와 아름다움』, 지식산업사, p.154  
59) 편집부 저(1990), 『국역 퇴계시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224-225.

散地新聞如不病(산지신한여부병)  
凶年家空似眞淸(흉년가공사진청)  
邇來夢想仙遊地(이래몽상선유지)  
何日投簪獨遠征(하일투잠독원정)

위 시는 실제로 이황이 병환에 시달리 때 지은 시이다. ‘散地新聞如不病’에서 자연 속에서 한가하니 병든 몸 같지 않다라고 하여 병든 상황 속에서도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통해 위안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병은 실제 이황의 육체적 병환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何日投簪獨遠征’에서는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온전히 자연에 심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산십이곡 言志 2수를 보면 연기와 구름으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을 친구로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간다는 표현에서 병은 실제 육체적 병이라기보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그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위의 한시에서 벼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며 끝난 것과는 달리 종장에서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言志 1수와 2수에서 쓰이는 ‘질병’ 모티프는 이전에 창작되었던 한시에서 쓰이는 질병과는 성격이 다르며 이는 자연에 심취한 자신의 흥취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煙霞의 김피 든 病 藥이 效驗 업서  
江湖에 褫리연디 十年 밧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귀 聖恩인가 ㅎ노라<sup>60)</sup>

60) 김대행(1993), 『한국고전문학전집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478.

연시조에서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질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후대 사대부 연시조 작품에도 꾸준히 계승되었다. 나위소의 <江湖九歌>에서도 자연에 은거한 즐거움을 초장에서 泉石膏肓과 일맥상통하는 煙霞痼疾로 표현하고 있다.

퇴계의 <도산십이곡>이 창작된 이후 사대부들은 이를 본받아 위에서 살펴본 후대 작품들을 창작하여 자연 안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즐거움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자신이 품고 있는 속세 및 학문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자연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잠시 피신하거나 정계에 진출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차선의 장소였다면 <도산십이곡> 창작 이후 자연은 학자들이 이치를 궁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이상적 장소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산수 문학의 흐름은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 3. 육곡계 시조의 전통 형성

육곡계 시조는 하나의 주제 아래 여섯 수의 시조가 한 단위를 이루어 한 작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고전시가 역사에서 하나의 줄기를 형성하였고 그 중심에 퇴계의 <도산십이곡>이 있다.

육가계 시가는 <도산십이곡> 이후부터 사대부들이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애국 및 연군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자연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표현상의 차이점은 드러나나 자연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육가계 시가는 공통적으로 유교적 이념과 질서를 작품화하여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선 전기와 후기의 연시조의 전통을 잇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sup>61)</sup>

61) 이현자(2002), 「조선조 연시조의 유형별 변이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P.169.

본 부분에서는 도산십이곡의 탄생 이후 육곡계 시가의 문학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이별의 <육가> 형식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이후 육곡계 시가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황은 후대 육곡계 시가에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황 이후 창작된 육가계 시가 작품들을 직접 살펴보고 도산십이곡과 비교하여 어떤 측면에서 후대 시조에 영향을 주어 육가계 시조의 전통을 확립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장경세의 <강호연군가>는 이황의 <도산십이곡>이 言志를 표현한 전육곡 言學을 표현한 후육곡으로 구분한 것처럼 애군우국지성을 나타낸 전육곡과 성현학문지정을 나타낸 후육곡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측면에서도 도산십이곡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62)</sup>

瑤空에 둘 붉거늘 一張琴을 빗기 안고  
 欄干을 디혀안자 古陽春을 툇온마리  
 엇더타 님향흔 시름이 曲調마다 나느니

紅塵의 꿈씨연디 二十年이 어제로다  
 綠楊芳草애 절로 노힌 ㅁ리 되어  
 時時히 고개를 드러 님자 그려 우노라

시저리 하 슈상흔이 ㅁ음을 들 ㅁ 업다  
 喬木도 네 ㅁ고 世臣도 ㅁ자시되  
 議論이 여긔저기 ㅎ이 그를 몰나 ㅎ노라<sup>63)</sup>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전육곡에서 강호에서 느끼는 흥취를 자연과 자신의 감

62) 조현진(2007), 「시대 배경을 통해 살펴 본 육가계 시조의 수용과 전승」, 서울시립대학교, p.132.

63) 장경세(2005), 『沙村集(韓國文集叢刊 續. 6 中)』, 민족문화추진회, p.29.

정의 합일을 통한 '賞心'으로 표현하여 세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강호연군가>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자연에서 임금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을 노래했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작품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자연경물들은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군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적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煙霞로 집을 삼고 風月로 벗을 사마  
太平 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너  
이 중에 抃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sup>64)</sup>

<도산십이곡> 言志 2수와 비교해 보면 연하, 풍월로 전경화되어 제시된 자연물들은 자연을 만끽하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화자의 심정과 결합되어 독자적인 의미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종장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허물이 없고자 하는 도학자의 모습이 드러날 뿐 세속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강호연군가에서 제시된 달, 綠楊芳草 등은 세속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前一曲에서 제시된 달은 연군지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前二曲에 제시된 '綠楊芳草'는 紅塵으로 제시된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前三曲에 제시된 '喬木'은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일한 충신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육가계 시조의 원류인 퇴계의 시조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자연에 은거하는 즐거움과 학문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주제의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임금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주제의식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유학의 대가인 퇴계의 시조 형식을 빌려 문학적 전통성을 획득함으로써 인해 자신이

64)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p.31.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더욱더 부각되기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權渠의 <屏山六曲>은 육가계 시조 맥락을 이어온 또 다른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삶에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세속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작품이다. 퇴계가 벼슬길에 오랜 세월 머물다 자연에 은거하여 <도산십이곡>을 지은 것과 달리 권구는 처음부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머물면서 안분지족한 삶을 살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권호문과 유사하다.

富貴라 求치 말고 貧賤이라 厭치 말라  
人生百年에 閑暇할사 사니 이내 것이  
白鷗야 날지 말아 너와 忘機 하오리라<sup>65)</sup>

1수의 초장에서는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가난함을 싫어하지 않겠다고 하며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중장에서는 자연에서의 안분지족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자연물 백구를 통해 물아일체의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표현하며 자연에서 세속에 대한 욕심 및 관심을 ‘忘機’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千尋絕壁섯난 아래 一帶長江 흘너 간다  
白鷗로 벼슬 삼아 漁釣生涯 늘거 가니  
두어라 世間 消息 나난 몰나 하노라<sup>66)</sup>

2수의 초장에서는 아주 높은 절벽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는 절경을 표현하고 있

65) 한춘섭 외 2인(1985), 『한국시조큰사전』, 을지출판공사, p.1106.

66) 한춘섭 외 2인(1985), 『한국시조큰사전』, 을지출판공사, p.1186.

다. 중장에서는 1수에서 등장했던 백구를 다시 등장시켜 자연과의 물아일체의 상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예로부터 자연 은거의 삶을 나타내는 어부의 삶에 빗대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산십이곡 言志 2수와 유사하다.

연하(煙霞)로 지불 삼고 풍월로 버들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으로 늘거 가뇌  
이 둥에 브라는 이른 허뜨리나 업고자

하지만 言志 2수의 중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바라는 바가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것에 있는 것과는 달리 <병산육곡>의 2수에서는 세속에 대한 소식에 관심이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초장, 중장의 내용과 합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연에 은거하여 세속에 대한 자신의 관심은 억제하려고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자연에 온전히 은거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첫 수의 중장에서 세속에 대한 생각을 잊겠다고 제시한 것 또한 역설적으로 세속에 대해 잊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리밥 파生菜를 量맞춰 먹은 後에  
茅齋를 다시 쓸고 北窓下에 누엇시니  
눈압해 太空浮雲이 오락가락 하눗다<sup>67)</sup>

3수에서는 ‘보리밥’과 ‘파생채’라는 제재를 통해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장에서는 누추한 자신의 보금자리를 쓸고 창가에 누워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내용이 드러

67) 한춘섭 외 2인(1985), 『한국시조큰사전』, 을지출판공사, p.1105.

나고 있다.

하지만 종장에서 ‘太空浮雲’은 여타 시가에 나오는 ‘紅塵’과 같이 자연과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어지러운 세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3수도 2수와 같이 종장까지는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드러내면서도 종장에서는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空山裡 저 가난 달에 혼자 우난 저 杜鵑아  
落花狂風에 어나 가지 의지하리  
百鳥야 恨하지 말아 내곳 설위 하노라<sup>68)</sup>

저 가막이 좃지말아 이 가막이 좃지말아  
林寒烟에 날은조차 저물거날  
어엿불사 翩翩孤鳳이 갈바 업서 하낫다<sup>69)</sup>

4수와 5수에서 ‘杜鵑’과 ‘翩翩孤鳳’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자 감정이입이 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4수에서 두견은 예로부터 ‘정한’의 감정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자연물이다. 위의 3수까지는 초장과 종장까지는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 및 감흥을 나타낸 것에 비해 4수와 5수는 초장과 종장에서부터 세속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落花狂風’은 꽃잎을 떨어뜨리는 광풍이라는 어석적 의미를 넘어서서 어지러운 정계현실이라는 의미로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다. 종장에서는 ‘두견’이라는 새 한 마리에 국한하지 않고 ‘백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세속에 머물고 있는 현명한 선비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는 5수의 까마귀와의 색채대비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청렴하고 현명한 선비들이 세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함과 동시에 아무런 행동 및 실천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68) 위의 책, p.1053.

69) 위의 책, p.1173.

5수에서 까마귀는 ‘백조’는 물론 ‘두견’과도 대조되는 대상으로 이는 ‘쫓지 말아’, ‘쫓지 말아’라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세속을 어지럽히는 간신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종장의 ‘野林寒烟’을 통해 겨울의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혹한의 계절에 빗대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정치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종장에서 ‘翩翩孤鳳’는 ‘두견’, ‘백조’와 공통적인 대상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현인 및 자기 자신을 ‘봉황’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즉 권구는 벼슬길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만 속세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西山에 해저 간다 고기비 씻단말가  
竹竿을 둘러 뒀고 十里長沙 내려가니  
烟火數三漁村이 武陵인가 하노라<sup>70)</sup>

마지막 수에서는 위의 다섯 수와 다르게 온전히 자연의 삶에 집중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서산으로 해가 저 가는 상황에서 고깃배가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과 대나무 낚시대를 들고 물가로 향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종장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소박한 어촌마을은 무릉도원으로 표현되고 있다.

1수에서 3수까지는 세속에 대해 잊으려 했으나 자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4수에서 5수까지는 세속에 대한 근심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 비해 종장에서의 이러한 마무리는 다소 급격한 전환으로 느껴질 수 있다.<sup>71)</sup>

하지만 세속에 대한 걱정은 벼슬을 나가는 사대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처사도 느끼는 것이며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와중에 느끼는 내

70) 한춘섭 외 2인(1985), 『한국시조큰사전』, 을지출판공사, p.1120.

71) 김상진(2010), 「권구의 <병산육곡>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연작성」,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p.133.

적갈등을 표현하고 이를 자연에서의 삶의 만족감을 통해 이겨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오히려 솔직한 처사의 심리 상태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산십이곡의 창작은 육가계 시가라는 새로운 연시조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각 연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하나의 상위 주제로 묶음으로써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각도로 고찰하여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연작 시조의 태동을 알린 것이다.

## IV. 반응중심모형을 활용한 陶山十二曲의 指導方案

### 1. 학습자 중심 개념으로서의 賞心

앞에서 사용한 개념인 ‘賞心’은 자연경물을 완상하는 감상자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자연경물과 감상자의 마음이 하나로 합치될 때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용어로 산수문학의 핵심 개념이다. 여기서는 상심을 학습자 측면에서 교육적 개념으로 재정의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 감상에 초점을 둔 교육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학습자 입장에서 재정의한 상심은 작품을 매개로 하여 간접 경험하는 자연경물과 학습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배경지식과 경험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뜻한다. 이 때 작품은 작가와 독자의 사이에 위치하며 작가와 독자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작가는 독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자신만의 주제 의식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품을 구성하게 된다. 산수문학의 경우 자연경물에 의해 촉발된 감정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상심을 통해 주제의식을 구성하게 되고 이를 구체적 작품으로 형상화하게 된다.

<賞心を 기반으로 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 과정>

작가 측면			독자 측면	
賞心	주제의식	작품	賞心	반응

작가 측면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된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에 묘사된 자연경물과 이와 더불어 표현된 화자의 상심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연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촉발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것 또한 학습자 입장에서 상상한 자연경물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므로 상심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즉, 산수경물을 직접 보고 형성한 감정만이 상심이 아니라 작품을 매개로 한 간접 경험을 통해 형성된 마음도 또 다른 상심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상심과 이를 수용하는 독자의 상심은 상이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시간 속 같은 자연 경물을 보고도 감상자마다 촉발된 상심이 다를 수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학습자는 상심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작품에 대한 타당한 해석에 더 다가갈 수 있다.

작품을 읽고 어석적 풀이를 통해 즉각적인 의미의 해석을 추구하거나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고정적 해석과 연결 지어 획일적인 답을 구하는 방식의 고전시가 교육은 명백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독자 스스로의 해석 능력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고전시가 교육에 대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획일적 해석 교육보다는 교수자가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감상안을 통해 촉발되는 정서에 집중하여 작품을 해석했을 때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도출해낸 자신의 해석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해석이 다른 학습자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고전시가 작품에 대한 흥미 및 해석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장에서는 해석의 결과보다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학습자 입장에서 재정의한 상심을 반응중심모형에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개인의 반응과 연계하여 설명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구체화하여 과정안으로 구성할 것이다.

##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전시가 교육

여기서는 고등학교 문학 교육과정 중에서 교수·학습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영역 및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고전시가 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내용 체계<sup>72)</sup>>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문학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예술</li> <li>• 진·선·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은 언어를 매체로 한 예술로서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과 세계의 이해</li> <li>• 삶의 의미 성찰</li> <li>• 정서적·미적 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선택하기</li> <li>• 맥락 이해하기</li> <li>• 몰입하기</li> <li>• 보조·참고 자료 활용하기</li> </ul>
문학의 수용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능력</li> <li>• 문학 문화</li> <li>• 작가와 독자</li> <li>• 작품의 내재적·외재적 요소</li> <li>• 문학의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활동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수용·생산하며 문학 문화를 향유하는 행위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내용과 형식</li> <li>• 작품의 맥락</li> <li>• 문학과 인접 분야</li> <li>• 작품의 수용과 소통</li> <li>• 작품의 재구성 과 창작</li> <li>• 문학과 매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해석하기</li> <li>• 감상·비평하기</li> <li>• 성찰·향유하기</li> <li>• 모방·개작·변용하기</li> <li>• 창작하기</li> <li>• 공유·소통하기</li> <li>• 점검·조정하기</li> </ul>

72)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p.124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li> <li>• 문학사와 역사적 갈래</li> <li>• 문학과 사회·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은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민족문화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과 범위</li> <li>• 전통과 특질</li> <li>•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li> <li>• 문학과 시대 상황</li> <li>•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li> <li>• 한국 문학의 발전상</li> </ul>	
문학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 성찰</li> <li>• 타자의 이해와 소통</li> <li>• 문학의 생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을 통해 삶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할 때 문학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성찰, 타자 이해</li> <li>• 공동체의 문화 발전</li> </ul>	

위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고전시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대부분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부분이다. 이는 고전문학 작품을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에 대한 태도’에서 다루기에 학생들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 구성은 학생들의 편향된 작품 수용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존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성의 경향 및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부분에서 <도산십이곡>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 관련 성취기준<sup>73)</sup>>

[12문학03-0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12문학03-06]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해당하는 성취기준들이다. 현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10종 중에서 도산십이곡이 실려 있는 교과서는 단 한 권뿐이다. 이러한 면만 보더라도 고전시가의 작품 선택의 기준이 문학과 교훈성보다는 작품의 난이도 및 학생들의 선호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문학03-03] 이 성취기준은 한국 문학의 갈래와 그에 속하는 구체적인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의 기본 갈래가 언어의 성격에 따라 구비 문학, 한문 문학, 국문 문학의 세 영역 아래 다양한 역사적 갈래로 구현된 양상을 탐구하도록 한다. 너무 긴 고전시가보다는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길이의 작품을 선정한다. 역사적 갈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작품 감상을 토대로 문학 갈래 전개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sup>74)</sup>

73)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p.128

[12문학03-06] 이 성취기준은 한국 문학의 내적 다양성과 외적 전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학에 대한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모색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공간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한국 문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문학의 총체로서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한편, 분단 이후의 북한 문학과 재외 국민이 한국어로 생산한 문학을 한민족 문학의 범주에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통일 후 민족 문학의 발전상을 모색해 보도록 안내한다. 시간적으로는 문자로 기록된 전통적인 문학과 디지털화된 새로운 문학의 관계 및 변화양상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미래의 한국 문학이 나아갈 바를 탐색해 보도록 지도한다. 나아가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 문학의 개념이나 범위가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측해 보도록 한다.<sup>75)</sup>

성취기준 여섯 개 중에 해설이 첨부된 성취기준은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와 ‘[12문학03-06]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 총 두 개밖에 없다.

이는 성취기준 해설을 자세히 할 경우 이에 얽매어 자유로운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경계하고 교사의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성취기준을 이용하기 바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부합한다. 성취기준의 수도 지난 2009 교육과정에 비해 줄어든 것도 이에 준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도산십이곡>이 제시된 교과서의 경우에도 <도산십이곡> 전문을 다루고 있지 않다. 서사 갈래의 흐름을 알아보는 소단원에서 言學 3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단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설시조 <한숨아 세 한숨아> 와 비교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작품의 형식적 차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76)</sup>

이러한 부분적 작품 제시는 작품 본질의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도산십이곡>은 사설시조와 비교하여 학생들이 시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된 정형적 평시조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그 이상 작품의 심층적

74)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p.128

75)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p.129

76) 정호웅 외 5명(2018),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주)천재교육, p.147-150.

의미를 탐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서정 갈래 단원의 첫 번째 작품으로 수록된 고려가요 <서경별곡>의 경우에는 일부분이 아니라 작품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sup>77)</sup>

이는 작품의 일부분만 제시했을 경우 작품의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경별곡의 경우 각 연의 의미가 연결되지 않고 분절된 작품을 연결시켜 한 작품으로 구성했다는 의견이 있을 만큼 연속성이 떨어짐에도 전문을 제시하고 전육곡 후육곡이 각각 言志와 言學 부분으로 내용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며 열두 수 모두 자연에서 느끼는 인간의 賞心에 귀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 단일성을 갖추고 있는 <도산십이곡> 중 단 한 작품만을 제시하는 것은 층위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시조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서정 갈래 작품으로 백석의 <모닥불>, 신경림의 <농무>와 같이 현대시의 경우는 두 작품이나 제시되어 있다.<sup>78)</sup>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시가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전시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에 각각 지어진 시이기 때문에 시대의 구분을 위해 두 작품을 수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려 시대에 지어진 고려가요와 조선시대에 지어진 작품을 세 작품만 수록한 것에 비해 현대시의 작품 구성 비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전시가가 보여주는 세계는 오늘날의 학습자가 경험하는 세계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고, 고전시가는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문학이 아니다. 이것이 고전시가 교육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적 이유이고, 동시에 고전시가 교육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본질적 이유이다. 고전시가는 오늘날의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미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다른 양식으로 향유되었다. 그 때문에 쉽게 공감하고 파악하기 어렵지만, 바로 그 다른 점이 학습자의 관점을 확장하게 해 주어 자아를 폭넓게 만들고, 오늘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들을 조망하고 해석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sup>79)</sup>

77) 정호웅 외 5명(2018),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주)천재교육, p.142-143.

78) 정호웅 외 5명(2018),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주)천재교육, p.152, 156.

79) 서명희(2013), 「시교(詩敎) 전통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p.147.

위의 관점처럼 고전시가 교육은 학생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측면을 교수자의 역량을 통해 학생들이 쉽고 흥미 있게 고전시가 작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여 참여를 유도한다면 현대 시가 교육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도산십이곡은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고전문학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산수 문학 중에서도 서경과 서정의 조화를 통해 산수문학의 완성을 이룬 작품이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 경물과 조화를 이뤄 賞心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형성된 학습자의 賞心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반응을 구성하기 효과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정형적 형식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시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작된 연시조라는 측면에서 시조 장르에 대해 보다 폭넓은 교육이 가능하며 육곡계 시가의 전통을 확립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전시가 교육의 가치에 주목함과 동시에 도산십이곡의 문학적 의의를 고려하여 작품 전문이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가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각각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문을 제작한 뒤 이를 반영한 반응중심모형을 기반으로 과정안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 3. 반응중심모형을 활용한 陶山十二曲 教授·學習 指導의 實際

반응 중심 모형은 문학 작품을 지도할 때 학습자 개인의 반응을 중요시하는 모형이다. 작품 해석이 독자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정설적인 하나의 해석을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개개인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지만 개별 학습자의 반응을 강조한다고 해서 작품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독자의 개별적인 반응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작품과 아주 동떨어진 해석은 무의미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즉 반응중심모형은 텍스트와 독자 간의 교류의 과정과 결과를 강조하는 모형이다.<sup>80)</sup>

#### <반응중심모형의 과정<sup>81)</sup>>

과정	주요 활동
반응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학습 문제 확인</li> <li>• 학습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 확인</li> <li>• 배경 지식 활성화</li> </ul>
반응 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읽기</li> <li>•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정리</li> </ul>
반응 명료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공유 및 상호작용</li> <li>• 자신의 반응 정교화 및 재정리</li> </ul>
반응 심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li> <li>• 일반화하기</li> </ul>

80) 최미숙 외 5명(2016),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p.102.

81) 최미숙 외 5명(2016),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p.102.

반응 준비하기 단계는 학습 문제 및 작품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즉 작품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 자신이 기존의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작품의 이해를 위해 배경지식을 외부에서 제공하는 단계이다. 삽화나 그림을 화면에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작품과 관련된 일상 경험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경지식을 떠올리게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학습 준비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작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내적동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가 작품 제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도 내적동기를 유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sup>82)</sup>

반응 형성하기 단계는 학생들이 작품 감상의 주체가 되어 문학 작품에 다가가는 단계로 반응 준비하기 단계에서 상기하거나 배운 배경지식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단계이다. 텍스트를 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및 지식과 연결 짓는 과정에서 비록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을지라도 일단 형성한 뒤 이를 수정 보완하면서 점점 완전한 해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을 읽는 즐거움에 심취하게 된다.<sup>83)</sup>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는 반응 형성하기 단계에서 형성한 자신의 반응을 토대로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여 점점 더 자신의 반응을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이는 추상적인 이해에 그치게 될 것이고 감상 내용의 발전을 경험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반응을 다른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듬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상호작용 후 자신의 정교화된 반응

82) 최미숙 외 5명(2016),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p.102.

83) 최선영(2006), 「'반응 중심 이론'을 적용한 <가시리> 수업 모형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p.20.

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독자적 감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과정을 경험하며 작품 감상의 내적 동기가 증대되게 될 것이다.

반응 심화하기 단계는 형성된 반응을 심화시키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감상한 작품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학 작품을 하나 이상 제시하고 두 작품 간의 관련성을 토대로 작품의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상호텍스트성에 기반을 둔 단계로 예를 들어 김광균의 <은수저>를 보며 작품에 대한 반응을 형성한 뒤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정지용의 <유리창1>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어린 자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작가의 심정을 시로 표현해낸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동시에 작품의 감정 표현 측면에서 보면 김광균의 <은수저>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낸 반면 정지용의 <유리창 1>은 대조적인 속성의 병치로 인하여 감정의 절제를 얻는 대위법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반응을 작품과 더욱더 깊게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해석으로 정교화시킬 수 있다.

반응 중심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문학 경험을 정리하여 계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 속의 내용과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대응 짓는 과정에서 독자는 고전문학을 옛날 선인들의 산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에게 교훈을 주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평생 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sup>84)</sup>

즉 반응 중심 모형은 독자 중심의 모형으로 이를 사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심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다른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석을 도출해 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성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작품의 심화된 이해를 얻고 작품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84) 구인환 외 3명(2012), 『문학교육론』, 三知院, p.241.

<(주)천재교육 교과서 중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 단원 성취기준<sup>85)</sup>>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본 반응중심이론의 학습 단계를 기초로 하되 학습과정에 맞게 변용하여 과정안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주)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한정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구성한 반면 여기서는 여섯 가지 성취기준 모두를 바탕으로 학습목표를 구성한 뒤 과정안을 작성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서정 갈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치중할 경우 개별 작품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섯 가지 성취기준에 각각 내재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문을 세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고 여섯 가지 성취기준을 수업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합한 뒤 각 성취기준에 알맞은 발문을 중심으로 과정안을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부분에서 학생의 ‘賞心’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 반응을 자유롭게 구성해 보는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12문학03-0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라는 성취기준은 지식 부분의 학습을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이므로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단어인 ‘개념’과 ‘범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시조 갈래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유도하는 발문이 필요하다. “시조를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해본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 볼까요?”, “인상 깊게 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었던 시조에 대해 말해 볼 학생 있나요?”와 같이 학생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85)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p.128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적 있는 시조에 대한 배경지식을 이끌어 낸다면 학생들이 고전시가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발문이 질문 대상의 영역이 넓다면 영역을 다소 좁혀 특정 영상을 보여준 후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몇몇 특정 시조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이끌어 내는 발문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를 현대 힙합 음악과 접목시켜 부르는 동영상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한 뒤 “방금 본 영상에서 사용된 시조 작품에 대해 설명해 볼 학생 있나요?”라는 발문을 통해 시조가 현대와 동떨어진 작품이 아님을 전달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시조에 대한 배경지식을 상기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시와의 차이점을 찾는 활동을 통해 시조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시조와 현대시의 내용적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조와 현대시의 형식적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대답하는 과정에서 시조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시와 시조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시조의 범위에 대한 발문을 제시할 수 있다. “시조는 현대시와 다르게 짧은 길이 때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학습자들은 연시조와 사설시조의 개념에 대해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에 대한 배경지식을 통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변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답변 후 교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확한 지식을 머릿속에 확립하게 된다.

둘째,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는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본 논문에서는 ‘도산십이곡’으로 설정할 것이다. 이전 성취기준의 학습을 통해 시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확립되어 있을 것이므로 더 나아가 도산십이곡을 통한 시조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시조의 형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창작된 사설시조와의 비교를 통해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산십이곡과 다음 사설시조를 비교했을 때 내용적, 형식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산십이곡은 사설시조처럼 정형성을 파괴하지 않고 연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형태적 변화를 추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도산십이곡 이후

에 지어진 육곡계 시가와 비교했을 때 작품의 배경설정 측면에서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산십이곡과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을 비교했을 때 주제를 이끌어 내는 방식의 공통점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정형적인 형식을 고수했던 조선 전기 시조 작품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형식에 대한 파격을 거치지 않은 것처럼 자연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은 것이나 주제의식의 구현 방식에서도 일관성을 지키며 산수문학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2] 성취기준이 조선전기 시조의 대표적인 도산십이곡의 전통성을 살펴본 성취기준이었다면 [12문학03-03] 성취기준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창작계층의 확장으로 인해 변해가는 시조 갈래의 전개 양상에 대해 탐구하는 성취기준이다.

“도산십이곡과 다음 작품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가 같은 시조 갈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내용적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창작 계층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시조 갈래의 창작 계층 범위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을까요?”, “시조의 창작 계층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와 같이 창작 계층에 초점을 둔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시조의 갈래가 변화된 이유를 창작 계층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음 주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도산십이곡과 다음 사설시조에서 주제적 측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조선 전기의 대표적 시조들에서 볼 수 있는 주제를 분류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까요?”, “조선 후기에 창작된 시조를 읽고 내용상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발표해 볼까요?” “조선 후기 사설시조에서 도산십이곡 및 여타 정형시조에 표현된 주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와 같은 발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발문을 통해 조선 전기 자연 완상을 통한 즐거움, 연군지정을 표현했던 추상적, 관념적 주제의식에서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사실적, 현실적 측면으로 주제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유와 더불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 이유가 조선 후기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이와 더불어 서민들의 창작 욕구가 심화되는 상황이 시조 갈래에

반영되어 사실시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넷째,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의 경우 작품 창작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를 작품에 연결 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해야 한다.

“조선 전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아는 점을 발표해 볼 학생 있나요?”, “조선 전기 이황이 살았던 1501년부터 1570년 사이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발표해 볼 학생 있나요?”와 같은 발문을 제시할 수 있다. 위 발문에 답변할 만한 배경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영상이나 읽기 자료와 같은 기초 자료를 제시한 뒤 발문하면 학생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말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조선 전기 시조 작품들과 고려 말 시조 작품을 읽고 느낀 차이점에 대해 발표해 볼 학생 있나요?”, “고려 말과 조선 전기 시조의 주제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시조가 처음 발생했던 고려 말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조선 전기 정치, 사회적 상황의 차이가 작품에 반영되어 있음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함과 동시에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조선 전기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도산십이곡의 주제와 표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조선 전기의 평온했던 역사적 상황과 도산십이곡 작품에 드러난 자연 완상에 대해 관련지어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시대적 상황과 도산십이곡을 직접적으로 연결 지으며 감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의 경우 성취기준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외국 문학’과의 비교 접점을 찾아 감상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발문을 제시해야 한다. “시에 제시된 자연물은 무엇이 있으며 이는 화자의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나요?”, “자연물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누구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의 제재 측면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산십이곡과 위 작품은 자연 풍경의 표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작품 내 자연물을 화자의 감정과 관련짓는 방식에서 두 작품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나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외국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의 길을 제시해주고 도산십이곡과 외국문학 작품의 비교를 해 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결과 도산십이곡과 외국문

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자가 정리하여 도산십이곡에 드러난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12문학03-06]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의 경우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고전시가와 현대 시가의 감상과 비교를 도울 수 있는 발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자연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나요?”, “도산십이곡과 위 시에서 삶의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 제시된 자연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산십이곡과 위 시에서 자연물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삶의 교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제의식의 표현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발문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상을 토대로 한 산수문학의 전통이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제부터 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성취기준 모두를 반응중심모형의 각 단계에 접목하여 과정안을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각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발문을 직접 사용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실제적 적용이 가능한 발문임을 검증할 것이다.

## 국어과 교수 · 학습 과정안

대 단 원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소 단 원	(1) 서정 갈래의 흐름
학습주제	조선시대 문학의 개념 및 역사와의 상호관계
학습목표	1. 賞心の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시조 갈래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도산십이곡과 당시 역사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교 사	학 생
<b>&lt;전개1&gt; 반응 준비 하기 단계 (25분)</b>	賞心の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賞心’의 개념과 관련된 발문을 제시한다.</li> <li>-“여러분은 소풍이나 여행을 갔을 때 자연 경치를 보며 특별한 생각을 떠올려 본 경험이 있나요?”</li> <li>-“문학 작품에 제시된 자연 풍경을 읽고 머릿속에 자연에 대한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나요?”</li> <li>-“머릿속에 떠올린 자연 풍경을 통해 특정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li> <li>• ‘賞心’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li> <li>-“賞心은 자연 풍경을 보고 생긴 감정과 풍경이 조화를 이루어 일정한 의미를 구현한 것을 의미합니다.”</li> <li>-“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발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생각한 뒤 대답한다.</li> <li>• 賞心の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li> </ul>

		<p>의 주제는 작가의 이러한 상심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상심은 작품을 창작할 때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표현된 자연을 간접 경험하는 순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를 감상하며 개인적으로 느끼는 상심을 토대로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주제의식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해볼 겁니다.”</p>	
<p>&lt;전개2&gt; 반응 준비 하기 단계 (30분)</p>	<p>시조의 개념과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십이곡 言志 1수와 정지용의 ‘유리창’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시조의 내용적, 형식적 특징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발문하여 연시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li> <li>-“시조와 현대시의 형식적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li> <li>-“시조와 현대시의 내용적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li> <li>-“시조는 짧은 길이 때문에 답을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li> <li>• 시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설명한다.</li> <li>-“시조는 고려시대 말에 지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조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 및 시조의 형식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사의 발문에 대해 답을 생각하고 대답한다.</li> <li>• 시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이해한다.</li> </ul>

	<p>지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우리말로 진솔한 정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 갈래입니다. 시조는 형식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적 형식을 갖춘 갈래로 지난 시간에 배운 향가 ‘제망매가’의 낙구와 유사한 형식으로 감정의 집약을 통해 마무리를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p> <p>- “짧은 형식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대시처럼 연구분을 통해 작품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시조를 ‘연시조’라고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십이곡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에 대해 발문한다.</li> <li>- “위의 내용을 도산십이곡과 관련지었을 때 도산십이곡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에 대해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li> <li>• 도산십이곡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li> <li>- “도산십이곡은 각각의 시조 작품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제시한 연시조에 해당합니다. 총 12수의 평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수부터 여섯 번째 수까지는 ‘전육곡’이라 부르며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을 표현한 부분으로 ‘言志’라고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과 도산십이곡을 연결지어 생각하고 발문에 대답한다.</li> <li>• 도산십이곡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교사의 설명을 비교하여 듣고 이해한다.</li> </ul>
--	--	--

		<p>그리고 일곱 번째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는 ‘후육곡’인데 학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부분으로 ‘言學’이라고 합니다.”</p>	
<p>&lt;전개3&gt; 반응 준비 하기 단계 (25분)</p>	<p>도산십이곡과 조선 전기 역사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시간에 배운 조선전기 역사적 사실과 도산십이곡과의 관계에 대해 발문한다. - “조선 전기의 평온했던 역사적 상황과 도산십이곡 작품에 드러난 자연 완상에 대해 관련지어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li> <li>• 지난 시간에 배운 조선전기 역사적 사실과 도산십이곡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 “조선 건국 이후 평온했던 시절이 지속되어 내용적 측면에서도 시조의 주제는 연군지정,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 등 일관된 주제의식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더불어 학문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문학작품에도 반영되어 주제의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전기 역사적 사실과 도산십이곡과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발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한다.</li> <li>• 조선전기 역사적 사실과 도산십이곡과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li> </ul>

위 과정안은 ‘[12문학03-0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두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반응중심모형 중에서 반응 준비하기 단계를 활용하여 구성한 과정안이다. 학생들의 심화된 해석을 위해 블록타임제로 수업하는 것을 가정하고 구성하였다.

우선 반응 준비하기 단계는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단계이므로 우선 산수문학의 중심 개념이자 작품 해석에 기초가 되는 ‘賞心’에 대한 개념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으며 시조의 개념과 시조의 내용적, 형식적 측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단계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현대 문학에 비해 고전시가에 대한 배경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대시에 비해 정형성을 갖춘 시가가 많이 창작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내용적으로도 현대시의 경우 다양한 주제의식이 표현되는 반면 고전시가의 경우 주제의식이 일관되고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경향이 강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도산십이곡의 개괄적인 설명을 통해 해당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 확장을 유도하였다. 평시조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 만든 연시조임을 지도하고 열 두수 중 앞의 여섯 수는 전육곡, 뒤의 여섯 수는 후육곡인 것과 각각 言志, 言學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반응 형성하기 단계에서 작품과 너무 동떨어진 반응을 도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시 학생들의 독자적인 해석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만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산십이곡이 창작될 당시 조선 전기 역사적 상황과 도산십이곡 작품의 주제의식을 연결하여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영론적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 국어과 교수 · 학습 과정안

대 단 원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소 단 원	(1) 서정 갈래의 흐름
학습주제	도산십이곡의 해석 및 시조 갈래의 전개 양상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산십이곡에 대한 주체적 해석을 공유할 수 있다.</li> <li>2. 도산십이곡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설명할 수 있다.</li> <li>3. 시조 문학의 갈래별 전개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li> </ol>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교 사	학 생
<b>&lt;전개1&gt; 반응 형성하기 단계 (20분)</b>	작품에 대한 주체적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대한 주체적 반응 및 해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li> <li>- “도산십이곡은 자연 풍경에 대한 감상을 기초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자연 경물에 대한 묘사에 초점을 두고 감상하며 자연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과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연결 지어 형성된 개인적 반응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바랍니다.”</li> <li>• 도산십이곡을 개인별로 감상할 시간을 부여한다. 반응 및 해석에 완벽한 정답이 없음을 강조하고 상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해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이해한다.</li> <li>• 도산십이곡 전문을 이전에 배운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해석한 뒤 개인 포트폴리오에 작성한다.</li> </ul>

		<p>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와 연관 지어 생각한 모든 해석이 의미가 있음을 사전에 주지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작품과 아주 동떨어진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잘못된 근거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회지도에서 들은 교사의 지도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반응 및 해석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li> </ul>
<p>&lt;전개2&gt; 반응 명료화 하기 단계1 (30분)</p>	<p>모둠 내 작품 해석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원들끼리 작품 해석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 가운데에 있는 발언막대 통이 보이시죠? 발언막대를 조장 학생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뽑으면 거기에 발언 순서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발표하면 됩니다.”</li> </ul> </li> <li>• 발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내용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배부된 학습지에 적혀진 대로 자신의 해석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해석이 자신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된다는 것은 지난 토론 시간에 모두 배운 내용이죠? 그리고 조원들의 발표가 끝나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해석을 공유하는 방법을 듣고 이해한다.</li> <li>• 발표 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태도와 진행 방법에 대해 숙지한다.</li> </ul>

		<p>해석의 장점 및 단점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회지도를 통해 조원들끼리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li> <li>• 조원들 간 작품 해석 공유가 완료되면 자신의 해석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과 조원들의 조언, 이를 반영한 해석을 개인용 문학감상 포트폴리오에 보관하도록 안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언막대를 통해 순서를 정하고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들으며 학습지를 작성한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뒤 조원간 피드백을 진행한다.</li> <li>• 작성한 학습지 및 조원들이 피드백 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해석을 수정·보완한다.</li> </ul>
<p>&lt;전개3&gt; 반응 명료화 하기 단계2 (30분)</p>	<p>도산십이곡의 전통과 특질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에게 생각해볼 내용을 발문을 통해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십이곡과 다음 작품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li> <li>- “도산십이곡과 다음 작품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li> </ul> </li> <li>• 도산십이곡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조의 전통과 특질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십이곡과 사설시조 두 작품과 비교했을 때 내용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발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시조의 변천과정에 대해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내용, 형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한다.</li> <li>• 도산십이곡을 사설시조와 비교했을 때 도산십이곡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의의에 대해 생각하고 조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학습지에 기재한다.</li> </ul>

	<p>시조 갈래의 변천 과정 이해</p>	<p>형식상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설시조가 창작되는 시기에도 이러한 도산십이곡의 내용과 형식은 많은 시조들에게 영향을 주어 명맥을 유지해 왔죠. 이는 정형시조가 고유한 전통과 특질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시조의 대표 격인 도산십이곡을 사설시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독자적 의미를 갖는지 시조의 소재와 주제의식에 초점을 두고 조원들끼리 상의하며 생각해보도록 합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조 갈래가 변천된 이유에 대해 발문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부여한다.</li> <li>- “도산십이곡과 다음 작품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가 같은 시조 갈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내용적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창작 계층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li> <li>• 시조 갈래의 변천에 대해 설명한다.</li> <li>- “사설시조는 창작 계층인 서민들의 정서 표출 욕구가 집합되어 생겨난 시조의 하위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평시조 안에서 표현할 수 없</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조의 변천과정에 대해 정형시조와 사설시조의 창작 계층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한다.</li> <li>• 시조 갈래의 변천에 대해 이해하고 사설시조가 평시조와 함께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임을 이해한다.</li> </ul>
--	------------------------	---	--

		<p>는 자유분방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형식상의 과격을 감수했다고 볼 수 있죠.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모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p>	
--	--	--	--

위 과정안은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두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반응중심모형 중 반응 형성하기 및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를 반영하여 작성한 과정안이다. 반응 형성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자유롭게 자신의 해석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주지시킴으로써 참고서나 문제지에 있는 해석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이전 시간에 배운 ‘賞心’의 개념을 상기시키고 작품을 감상하여 자연 풍경과 거기서 촉발된 자신의 감정을 연결지어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반응 형성하기 단계에서 한 번에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타당한 해석을 도출해내기 쉽지 않으므로 개인용 문학 감상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게 하여 자신의 해석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변형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회지도는 학생들이 작품을 해석하는 동안 세심하게 학생을 관찰한 뒤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단계이다. 이때 정답을 바로 제시해 주어서는 안되고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발문을 통해 합리적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이후에도 자신의 해석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작품에서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제시해주는 것도 학생들의 해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학습 목표에 제시된 것처럼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에서는 다른 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비판적 이해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데 목적이 있는 비난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반드시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 및 지식을 더욱더 정교화하는 단계이므로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단계는 모둠 내에서 작품 해석을 공유하는 단계로 모둠 내에서 학생들은 발언 막대를 통해서 발표 순서를 정하고 자신의 해석 내용을 차례로 공유한다. 이때 단순히 듣는 활동만 하는 것은 기억의 휘발성 때문에 정교화된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학습지를 배부하여 자신의 해석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으면서 듣도록 하고 더불어 학우들의 해석에 대해 피드백해 줄 것을 미리 작성하여 발표가 끝난 뒤 발표자에게 예절을 지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발표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모둠 내 발표가 모두 끝나면 조원들이 피드백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해석을 더욱더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이 활동의 목적 자체가 더욱더 정교화된 해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단계는 시조의 하위 갈래 중 정형시조인 도산십이곡과 사설시조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갈래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하는 단계이다. 유사한 형식을 공유하면서도 세부적 특징이 다르고 주제의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이유를 창작 계층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정형시조의 독자적 의미와 더불어 창작 계층의 필요에 따라 특정 갈래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습자의 해석은 2번의 정교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차 정교화는 모둠 내에서 발표 후 자기 스스로 해석의 내용을 정교화 하는 과정이고 2차 정교화는 1차 정교화된 해석을 통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동일 층위의 갈래인 사설시조의 비교를 통해 갈래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작품의 독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는 자신의 해석과 갈래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명료화할 수 있게 된다.

## 국어과 교수 · 학습 과정안

대 단 원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소 단 원	(1) 서정 갈래의 흐름
학습주제	도산십이곡에 대한 심화 학습 및 이해
학습목표	1.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 산수문학의 흐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교 사	학 생
<b>&lt;전개1&gt;</b> 반응 심화 하기 단계1 (40분)	도산 십이 곡과 외국 문학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비꽃’ 시에 표현된 ‘賞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발문하고 개별적으로 암송하게 한다.</li> <li>- “꽃이나 나무를 보고 인간의 속성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li> <li>- “작품을 암송하며 작가가 자연물을 통해 어떠한 감정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자신의 내면에 어떠한 정서가 유발되는지에 초점을 두어 감상해 봅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발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작가와 자신의 賞心에 초점을 두어 시를 암송하며 작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작품 ‘제비꽃’에 대한 해석을 발문을 통해 유도한다.</li> <li>- “시의 제목이기도 한 제비꽃은 화자의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나요?”</li> <li>- “제비꽃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누구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li> <li>- “이 작품은 제비꽃의 연약한 생김새를 기반으로 꽃을 의인화하여 한 여인에 대한 사랑과 좌절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마음이 제비꽃과 결합되어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li> <li>• 도산십이곡과 제비꽃에 대해 학생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발문을 통해 생각해 볼 내용을 제시한다.</li> <li>- “제재 측면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li> <li>- “도산십이곡과 제비꽃은 자연 풍경의 표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li> <li>- “작품 내 자연물을 화자의 감정과 관련짓는 방식에서 두 작품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나요?”</li> <li>• 제비꽃과 비교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도산십이곡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발문에 대답하며 ‘제비꽃’에 대한 해석을 학습지에 작성한다.</li> <li>• 자신이 정리한 학습지를 참고하며 발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고 ‘도산십이곡’과 ‘제비꽃’ 두 작품을 비교한다.</li> <li>• 교사의 설명을 자신이 생각한 것과 비교하며 도산</li> </ul>
--	--	---

		<p>문학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설명한다.</p> <p>- “두 작품 모두 제재적 측면에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이 나타내고자 한 주제를 표현했다는 의의가 있고 이는 세계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학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p> <p>하지만 도산십이곡은 자연경물 그 자체의 표현과 묘사도 중요시 했으며 동시에 자연과 감정의 조화를 중요시했다면 제비꽃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묘사가 없고 자연물을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도산십이곡의 문학적 특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p>	<p>십이곡이 지니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정리한다.</p>
<p>&lt;전개2&gt; 반응 심화 하기 단계2 (40분)</p>	<p>도산십이곡과 현대시 작품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이 날 에워싸고’ 시에 표현된 ‘賞心’에 초점을 맞춰 개별적으로 암송하게 한다.</li> <li>- “자연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나요?”</li> <li>- “작품을 암송하며 작가가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을 자연물과 결합하여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관점과 비교하며 감상해 봅시다.”</li> <li>• ‘도산십이곡’과 ‘산이 날 에워싸고’에 대해 비교할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발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賞心에 초점을 두어서 암송하며 작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li> <li>• 교사의 발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이를 통해 시조와</li> </ul>



위 과정안은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12문학03-06]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를 기반으로 반응중심모형 중 반응 심화하기 단계를 적용하여 작성한 교수·학습 과정안이다.

반응 심화하기 단계의 핵심 단어는 '상호텍스트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반응 심화하기 단계에서는 비교가 가능한 작품을 끌어와 두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해 심화된 이해를 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외국 문학, 현대시 작품과의 비교를 토대로 작품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와 마찬가지로 반응 심화하기 단계도 임의로 2단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외국 문학과 비교를 통해 도산십이곡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파악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도산십이곡과 외국 작품을 비교하며 읽을 때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발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외국 문학과 이미 정교화된 이해를 진행한 도산십이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해석을 진행할 때 '賞心'에 초점을 두어 자연 경물을 통해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단계에서는 현대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산수 문학의 흐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 외국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 산수문학의 의의에 대해 파악했다면 2단계에서는 긴 시간의 흐름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산수문학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였다. 자연을 소재로 시를 창작한 '청록파' 작가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산수를 통해 촉발된 '賞心'을 표현하는 산수 문학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도산십이곡에 드러난 산수 문학의 전통적 특징에 대해 심화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VI. 結論

본 논문은 사대부 산수문학의 양식을 정립하고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룬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분석하여 도산십이곡의 문학과 배경, 교훈성,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전시가 교육의 입지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지금 고전시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반응 중심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여기서는 위에서 다룬 측면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陶山十二曲의 문학과 배경에서는 먼저 자연 경물을 전경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도산십이곡의 서경미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산수경물을 표현할 때 작가의 감흥을 촉발해낸 특정 자연물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자연 경물들은 표현하지 않고 배제하는 방법에 초점을 뒀 작품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퇴계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 경물과 별개로 제시하지 않고 감정과 경물의 합치를 통해 형성된 ‘賞心’을 통해 표현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작품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산십이곡의 서정미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서경미와 서정미의 조화를 통해 이황이 추구하였던 성선설에 기반한 유학적 가치관이 시조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파악하며 시조가 단순히 정감표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둘째, 도산십이곡이 전육곡과 후육곡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言志’와 ‘言學’의 뜻을 담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전육곡과 후육곡 중 주제를 집약하고 있는 言志 6수와 言學 6수를 중심으로 각각 상호텍스트성 관계를 가지는 이황의 한시 작품들을 찾고 연결하여 도산십이곡의 교훈성을 고찰해 보았다.

‘도산십이곡발’에서 이황이 제시했던 것처럼 같은 내용이라도 한시로 제시했을 때 자연스럽게 읽고 부를 수 없어 독자와 창자가 감화를 얻을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조를 사용하였고 산수경물과 인간 감정의 조화를 절묘하게 그려내어 창작 목적을 달성했음을 한시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황이 강조했던 ‘온유돈후’에 집중하여 이별의 <육가>와는 다르게 당대 사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직접적으로 표

현하지 않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독자가 스스로 작품을 체득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작품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창작 시기가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적 경지가 완숙했을 때 지은 작품인 만큼 이전의 창작한 한시 작품보다 도산십이곡이 학문적, 수양적 교훈성 측면에서 더 높은 경지를 이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도산십이곡의 문학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황의 도산십이곡이 창작되기 이전에 영남학파의 선배격인 이현보와 주세붕의 시조를 살펴봄에 자연 흥취에 대한 감상과 인간에 대한 교화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며 한국산수문학의 표본이 된 도산십이곡의 작품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황의 문하생인 권호문의 <한거십팔곡>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도산십이곡의 내용 전개와 표현 방식이 사대부 시가의 모범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강익의 시조, 윤선도의 <만홍>과 도산십이곡의 관계를 살펴봄에 도산십이곡부터 시작된 사대부 시가의 정형성이 후대에 까지 굳게 이어져 내려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산십이곡은 여러 후대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내용과 표현 방식 뿐만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시에도 고시, 율시, 배율과 같은 정형적 형태가 있듯이 이황의 도산십이곡이 사대부 시조의 정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도산십이곡이 전육곡, 후육곡으로 나누어진 것에 착안하여 많은 후대 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육곡계 시가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위에서 고찰하였다.

넷째, 산수 문학의 주요 용어인 ‘賞心’을 학습자 중심의 개념으로 재정의한 뒤 작품을 수용할 때 상심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과정안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 성취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전시가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행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도산십이곡의 의의와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고전 작품에 대한 두려움과 어렵다는 고정관

념을 탈피하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 스스로의 감상 내용에 초점을 둔 ‘반응중심모형’을 사용하였다.

우선 ‘반응중심모형’의 네 단계인 반응준비하기, 반응형성하기, 반응 명료화하기, 반응 심화하기에 대한 개념과 지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해당하는 여섯 개 성취기준 각각을 달성할 수 있는 발문을 제작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고전시가 교육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으며 반응중심모형 또한 이론에 제시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해당되는 여섯 개 성취기준 모두와 연관 짓는 과정에서 변용을 거쳤으며 이를 발문과 결합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에게 정답인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해석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고전시가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해석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정안을 구성하였다.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산수경물에 대한 감상을 통해 촉발된 정서를 추상적이고 관념성에 치우치지 않게 자연과 합치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산수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산십이곡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오늘날 학생들이 현재 시대에 맞게 변용시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산십이곡의 산수문학적 의의 및 교육적 가치를 검증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고전시가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음과 동시에 평생 독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편집부(1968), 『국역 퇴계집 I』, 민족문화추진회  
편집부(1968), 『국역 퇴계집 II』, 민족문화추진회  
편집부(1990), 『국역 퇴계시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1990), 『국역 퇴계시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 단행본

- 손오규(2000),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손오규(2006),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손오규(2012),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심재완(1969), 『古時調千首選』,螢雪出版社  
심재완(1972),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한춘섭 외 2인(1985), 『한국시조큰사전』, 을지출판공사  
김대행(1993), 『한국고전문학전집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장우 외 1명(2007), 『퇴계시 풀이 1』,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장우 외 1명(2007), 『퇴계시 풀이 2』,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장우 외 1명(2007), 『퇴계시 풀이 3』, 영남대학교출판부  
강익(2010), 『介庵文集』, 함양문화원  
윤선도(2015), 『고산유고4』, 한국고전번역원  
박이문(2017), 『인식과 실존』, 미다스북스  
권호문(2018), 『송암집5』, 도서출판 드림  
조동일(2009),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 김대중(2008), 『도산에 사는 즐거움』, 돌베개
- 장경세(2005), 『沙村集(韓國文集叢刊 續. 6 中)』, 민족문화추진회
- 신연우(2006), 『이황 시의 깊이와 아름다움』, 지식산업사
- 최미숙 외 5명(2016),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 구인환 외 3명(2012), 『문학교육론』, 三知院
- 권순희 외 2명(2017),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 3. 논문

- 손오규(1990), 「退溪의 山水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최재남(1987), 「‘육가’의 수용과 전승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정화(2003), 「退溪時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 이현자(2002), 「조선조 연시조의 유형별 변이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 송지연(2012),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영숙(2004), 「육가계 시조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현진(2007), 「시대 배경을 통해 살펴 본 육가계 시조의 수용과 전승」,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
- 최선영(2006), 「반응 중심 이론’을 적용한 <가시리> 수업 모형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선미(1995), 「松巖 權好文 詩歌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경철(2000), 「松江歌辭의 敍景性 研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명희(2013), 「시교(詩敎) 전통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 김상진(2010), 「권구의 <병산육곡>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연작성」,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4. 기타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정호웅 외 5명(2018),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주)천재교육

<Abstract>

## The Literary Value of Dosansibigok and its Teaching and Learning Plans

Jo Ji-hun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Dosansibigok> by Toegye, a representative work of the landscape literatur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established the tradition of the Yukgok-style poetry song by using the Yukgok-style format sufficiently expressing the theme while maintaining the Sijo pattern. Also, the work expressed the author's inspiration and enjoyment felt from nature as well as his ideas of scholarship harmoniously with natural landscape, thereby influencing other poetry songs in the later period.

In this study, the educational values of Dosansibigok were reviewed from various angles, and teaching and learning plans for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ection in which the majority of traditional literature works were covered with respect to the 2015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of the literature subject were suggested.

First, in the expressions of natural scenery in Dosansibigok, the techniques of concentration and exclusion were used. In the foregrounding process, the sense of rewarding (賞心) formed through the harmony of romantic aesthetics and natural scenery and the emotion was explored along with how Toegye's

Confucian landscape view was reflected in his works.

Second, the lessons of <Dosansibigok> were discussed. Shedding light on the last sentence of each part implying the themes of Six Eonji and six Eonhak, the study analyzed how Toegye expressed the words that he would like to leave to his scholarly followers and descendants in relation to other poems written by Toegye. 'Yukga' by Yibyeol was also compared regarding how the phase of Onhudonhu mentioned in 'Dosansibigok Bal' was revealed in the work.

Third,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Dosansibigok> was reviewed. Compared to the poetry songs by Yi Hyeonbo and Ju Sebung, who were the Yeongnam school scholars prior to Toegye, Toegye accepted the strengths of these poetry songs and improved their weakness to create advanced landscape literature. In order to reveal the influences of Dosansibigok, works by various scholars created after <Dosansibigok>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Yukgok-style poetry songs in the later period, the Yukgok-style format of <Dosansibigok> was handed down and established a strand of tradition.

Fourth, 'the sense of rewarding' mentioned above was redefined as learner-centered,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learner-centered educati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raditional poetry song education system in the 2015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were pointed out. For the improvement plans, the study proposed the specific questionings for the goals of each of the six achievement standards that corresponded to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ection. Moreover, its practical applicability was verified based on the process plan reflecting the reaction-centered model.

This study confirms that <Dosansibigok> has great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contributes to addressing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s and orientation of traditional poetry song education in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